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부록

1. 흠정역 성경과 탄데일	1
2. 흠정역 성경의 4중 우수성	17
3. 흠정역 성경 개정 신화	50
4. 한글성경 용어설명	60
5. 영어 성경 동사 어미 변화	73
6. 성경 연대기	74
7. 지도 색인	78
8. MEMO	80



## 진리와 순교자

# 흠정역 성경과 틴데일

제임스 왕(King James)이 몸소 제정한 「흠정역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으며 특히 틴데일(William Tyndale)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흠정역 성경」의 출간이 매우 힘들었거나 늦추어졌을 것이다. 이에 본 부록에서는 「폭스의 순교사화」의 틴데일 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 성경의 역사와 틴데일의 일생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경을 우리 평민들의 손에 쥐어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고가 있었는지 기억하고자 한다.

### 영국과 영어의 역사

영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영국 민족 및 영어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후 5세기에 로마가 영국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브리튼족은 색슨족의 도움을 받아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략을 막아냈다. 색슨족은 북부지방에서 승리를 거둔 뒤 돌아갔으며 그 후에 영국 남부를 차지하려 했다. 이런 싸움은 거의 15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동안에 앵글로족, 색슨족, 여러 이교도 등이 고대 영국을 일곱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다. 그 뒤 이 왕국들은 주변의 좀 더 강한 왕국으로 합병되었고 마침내 주후 827년에 에그베르트는 이 모든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이 동안에는 영국 전체에 복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였고 6세기 후반에 켈트의 왕이었던 에그베르트가 회심한 후에야 비로소 다시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색슨족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덴마크족이 계속해서 영국을 침략했고 여러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다가 주후 878년에 알프레드 대왕이 에탄둔에서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게 되었다. 그 뒤 150년 동안 영국인들과 덴마크족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영국 교회는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랑프랭에 의해 재조직되었다. 이 기간에는 앵글로/색슨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에게 전해 주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8세기 초반에는 시편과 복음서를 번역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번역본은 현재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후 735년에 비디는 복음서를 번역했으며 알프레드 대왕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위하여 스스로 시편을 번역하기도 했다. 10세기 후반에는 아엘프릭 주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고 이로써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뒤 약 400년 동안은 영어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주후 1066년에서 1150년까지는 색슨족의 언어와 노르만/프랑스어가 같이 쓰였다. 그러다가 1150년 이후에 이 두 개의 언어는 서로 병합되기 시작했고 결국 고대의 색슨어가 아니라 절반만 색슨어라는 의미의 '반-색슨'(semi-Saxon) 언어라는 것으로 귀착되었고 그 뒤 1382년에 어느 정도 영

어가 정형화된 상태에서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 순교자 위클리프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서 번역을 시도했다. 비록 그가 만든 영어 성경이 원본이 그릇되었으므로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 정죄를 받고 출회를 당했으나 그래도 1384년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수행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번역 성경은 일일이 손으로 필사를 해야 했다.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 데는 열 달 정도가 걸렸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도서관 사서의 일 년치 봉급이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성경이 필사되자 마침내 영국 국회는 법령을 제정하여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영국의 아론델 대주교는 교황에게 ‘저 사악한 위클리프’를 처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뒤 1408년에 그의 지휘 하에 옥스퍼드 회의가 열려 “어떤 형식으로든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그런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결정했고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뒤 약 100년 동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위클리프의 성경을 목에 매단 채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와 그의 동역자들의 수고로 많은 성경이 필사되어 아직까지 170권이 남아있음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영어 성경이 평민들의 손에 들어가자 큰 위협을 느낀 교황 요한 23세는 콘스탄스 공회를 열어 위클리프의 성경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미 죽어 무덤에 안치된 위클리프의 유골을 캐내어 불사를 것을 결의했다. 그 뒤 13년이 지나서 이들은 실제로 위클리프의 무덤을 열고 그의 뼈를 캐내어 불사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박해를 겪으면서도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손에 쥐어 주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손으로 일일이 필사해야 하는 제약점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급할 수 없었다.

## 구텐베르크와 인쇄술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약 100년 전에 독일의 멘즈라는 오래된 마을에 요한 구스플레쉬(John Gooseflesh)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천주교 사제들이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양피지를 만들어 어려운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요한은 칼로 무엇인가를 조각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불 옆에서 자기 어머니가 꿰고 있는 자주색 염색 냄비를 지켜보며 나무에다 자기 이름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글씨를 새긴 나무 조각들 가운데 하나가 염색 냄비 속으로 들어갔다. 얼른 그것을 꺼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그 옆에 놓여 있던 양피지에 떨어졌다. 그가 나뭇조각을 집어 올리자 그 양피지에 ‘h’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갔지만 멘즈의 이 소년은 자기가 살던 옛 집에서 그 날 일어난 일을 잊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그 당시까지 해 온 것처럼 손으로 책을 필사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으로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조각을 깎아 그 위에 글씨를 새기고 염색하는 잉크를 묻혀 여러 가지 형태로 배열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구나 역사책을



알프레드 대왕



윌리엄



구텐베르크



윌리엄 성경



구텐베르크 성경 인쇄 장면

통해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처음 발명했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이 일에도 성경을 널리 보급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참으로 묘하게도 주후 1450년에서 1455년 사이에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은 다름 아닌 라틴어 성경책이었다.

## 그리스 문화의 복원

인쇄술이 발명되던 그 당시에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터키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대부분의 훌륭한 학교들이 몰려 있던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어 학자들은 유럽의 각처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리스어 신약성경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읽어 오던 「구(舊) 라틴 별게이트」라는 번역 성경 대신 원어인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로 인해 성경을 모든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어에 대한 연구와 인쇄기의 발명 그리고 영어의 정형화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순교자 틴데일

이 같은 변혁의 시기에 로마 카톨릭 주의와 그들의 변개된 사본을 단호히 물리치고 개혁자들과 함께 순교하면서까지 영국의 평민들에게 영어 성경을 전해주고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틴데일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평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는 일이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며 킹제임스 흠정역(*King James Version, KJV*)과 같은 걸출한 역본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20세기의 현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바친 틴데일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었던 틴데일은 주후 1484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글로우체스터셔의 노스니블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는 어학과 다른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특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성경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그달렌 홀에서 지내면서 마그달렌 대학의 몇몇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몰래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들려주었고 성경의 지식과 진리에 대해 교훈을 주었다. 그의 예의범절과 행동 등이 성경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이며 흠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학교의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틴데일이 시간을 내던 그는, 152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 가서 강사로서 몇 년 간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늘린 그는 그 대학을 떠나 자기 고향인 글로우체스터셔로 가서 기사인 마스터 웰치(Master Welch)라는 사람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그의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주인인 웰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웰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하곤 했으며 따라서 그에게는 대수도 원장, 집사, 집사장,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의사 및 교회의 녹을 먹는 성직자 등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틴데일과 함께 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특히 루터와 에라스무스같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와

질문 등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를 나누게 되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해 온 틴데일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곤 했다. 그들의 의견이 자기 의견과 다를 때면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서 그들 앞에서 명백한 성경 구절을 보여 주곤 했으며 이로써 그들의 오류를 논박했고 자기 말을 확증시켜 주었다. 이처럼 그들은 얼마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을 하다가는 마침내 지쳐서 마음속으로 틴데일에 대한 불평을 품기 시작했다. 일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자 그 지역의 사제들은 선술집이나 다른 곳에서 함께 모여 틴데일에 대해 비난과 폭설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그의 말이 이단 교리임을 확증시키려 했고 또한 비밀리에 그를 주교의 종교법 고문 및 주교의 관리들 중 다른 이들에게 고소하였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주교의 종교법 고문이 새로 임명을 받고는 여러 사제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틴데일도 그 안에 끼어 있었다. 틴데일이 그들의 위협에 대해 미심쩍어 했는지 혹은 그들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음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단지 그가 밝히 드러낸 바와 같이 그는 그들의 비밀 고소에 대해 의심을 품었으며 그래서 거기로 가는 길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자기에게 힘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그가 종교법 고문 앞에 설 날이 오자 그 고문은 틴데일을 심하게 위협하였고 마치 그를 개처럼 취급하며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아무도 고소한 일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의 책임을 물었다. 그 지역의 사제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간신히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틴데일은 집을 떠나서 다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거기에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주교의 고문으로 있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틴데일과 잘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틴데일은 그에게 가서 자기 마음을 열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황이야말로 성경이 말해 주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는가? 그러나 말조심하게, 당신이 그런 의견을 가진 것을 알게 되면 목숨이 달아날 걸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틴데일은 우연히 어떤 신학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매우 학식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대해 그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그 위대한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다.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이 말을 들은 틴데일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충만한 채 이 같은 신성모독 발언을 참지 못하고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틴데일에 대한 사제들의 불평은 점점 더해 갔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틴데일을 향하여 짓어댔고 욕을 했으며 그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로부터 많은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결국 그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장소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 웰치에게

가서 그의 결을 떠나도 좋다는 호의를 입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인이시여, 내 생각으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없으며 비록 주인께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시려 한다 해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인해 많은 불명예를 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틴데일은 자기 주인의 호의를 입고 곧바로 런던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그전 지방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동안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는 그 당시 런던의 주교였던 톤스탈(Cuthbert Tonstal)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톤스탈의 학식을 매우 높이 평가한 에라스무스의 추천의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만일 자기가 그의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의 감사관인 길포드 경에게 자기가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소크라테스의 연설을 가지고 가면서 틴데일은 그가 자기를 위해 런던의 주교인 톤스탈에게 이야기 해 줄 것을 고대했다. 그런데 그는 틴데일을 위해 그 주교에게 편지를 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주교를 방문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헬비스웨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주교의 종에게 편지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틴데일에게나 자신의 교회에게나 최상의 것이 되지 않음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그 주교의 눈에 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 주교는 현재 자기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틴데일을 위해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런던의 주교에게서 거절을 당한 틴데일은 런던의 부시장인 몸무스의 집에 가서 자기를 도와 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러자 그는 틴데일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집에서 틴데일은 매우 착실한 사제로서 밤낮으로 연구를 하며 지내게 되었으며 주인의 호의로 삶은 음식만을 먹게 되었다.

이처럼 1년 정도를 런던에 머물면서 틴데일은 이 세상의 행로가 무엇인지 차츰 깨닫게 되었는데 특히 복음 선포자라 불리는 자들의 행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교만했으며 스스로 권위를 세웠고 특히 고위 성직자들의 겉치레는 그들의 다른 행실들과 함께 그에게 큰 불쾌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주교의 집에서 신약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고 또한 영국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몸무스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지역에서 떠나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 독일로 떠났다. 거기에서 이 선한 사람 틴데일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에 불타서 어떤 힘든 일이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확실성에 대한 깨달음을 자신의 영국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프리스와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그는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히 읽게 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눈앞에 그들의 모국어로 평이하게 주어져서 그들이 스스로 본문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궤변이나 자기들이 고안한 전통 등으로 이 진리를 저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보통 사람들이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낸 경우에 진리의 대적자들이 본문을 조작하여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틴데일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서 가려진 것 바로 그것이 교회 내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랫동안 바리새인들 같은 성직자들이 가증한 행위와 우상 숭배를 행해 왔지만 성경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찾아내어 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부패한 성직자들은 전력을 다하여 성경 말씀을 짓누르려고 애를 썼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들이 읽는다 해도 여러 가지 궤변으로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흐리게 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각종 가증한 것들을 경멸하는 자들을 위협과 속박으로 엮어냈다. 또한 그들은 본문의 의미와는 다르게 성경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추어 마구 뜯어고쳤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들이 말한 것이 다 거짓임을 알고 있다 해도 그들의 교묘한 술책을 이길 방도가 없었다.

이런 저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선한 사람 틈데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자기 고국의 단순한 평민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자 했다. 처음에 그는 독일의 함부르크로 갔다. 그러나 영국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정탐꾼들을 고용하여 그의 일을 방해했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경을 인쇄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신변에 큰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

한편 쾰른에 인쇄소가 있었으므로 그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성경을 인쇄해 줄 인쇄공을 찾아냈다. 그는 영국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이 작업이 끝난 것을 알면 자기를 체포해 갈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숨을 건지려면 빨리 도망가라는 제보가 그에게 들어왔다. 술에 취한 인쇄공으로부터 그의 신약성경이 거의 인쇄될 단계라는 것을 듣게 된 로마 카톨릭 사제가 그를 체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간신히 원고들을 챙겨 마틴 루터가 살고 있던 보름스로 도망갔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주후 1524-1525년경에 자신의 영어 신약성경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두 종류의 성경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크기가 컸고 다른 하나는 작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영국의 성직자들이 큰 성경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작은 것들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성경들을 영국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그는 큰 통이나 짐짝에 옷가지나 밀가루 등과 함께 이 성경들을 숨겨 마치 다른 상품처럼 꾸며 영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성경들이 영국에 들어와 판매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성직자들은 항구를 조사하여 성경을 찾아냈고 찾는 대로 불태워 버렸다. 한편 영국 런던의 주교인 톰스탈과 토마스 모어 경은 너무나 화가 나서 틈데일의 영어 성경을 ‘거짓되고 실수가 많은 번역’이라고 깎아 내렸으며 또한 그의 역본을 없앨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그 당시 포목상이던 패킹턴이라는 사람이 톰스탈 주교와 함께 엔트워프에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틈데일을 사랑하였으나 그 주교에게는 반대로 말을 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던 주교는 어떻게 하면 틈데일의 신약성경을 다 사들여 불태울 수 있을지 그에게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패킹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주시여! 주교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여기 있는 어떤 상인보다도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과 틈데일에게서 성경을 사들여 여기에서 판매한 외국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교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그것들을 사들이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교님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인쇄된 것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교는 이제야 말로 이 일을 끝장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에게 말했다.

“패킹턴 선생, 부지런히 이 일을 수행하시오. 그 성경들을 구해 주시오.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다 지불하리이다. 내가 그것들을 다 모아 성 바울 십자가 광장에서 불사를 것이오.”

이 일 후에 패킹턴은 틈데일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알려 주고 서로 협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런던의 주교는 틈데일의 남은 성경을 모두 입수했고 패킹턴은 주교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고 틴데일은 큰 돈을 얻게 되었다.

그 후에 틴데일은 동일한 신약성경을 다시 한 번 수정한 뒤 새롭게 인쇄해서 이전의 세 배나 되는 많은 양의 성경을 영국으로 보냈다. 런던의 주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패킹턴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외부에 그토록 신약성경이 많이 돌아다닌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그것들을 다 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패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저는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성경을 다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성경을 인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활자와 인쇄기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쇄기까지 다 사들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대답에 주교는 웃고 말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틴데일을 도와주던 콘스탄틴은 그 당시 영국의 종교법 고문이었던 토마스 모어 경에 의해 어떤 이단 교리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모어 경은 그에게 물었다.

“콘스탄틴! 내가 묻는 한 가지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기 바란다. 그러면 너를 고소한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풀 것을 약속한다. 바다 너머에 틴데일과 조이와 다른 일당이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이니 돈의 출처를 알고 있을 거다. 청컨대 그들을 돕는 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하도록 해라.”

이에 대해 콘스탄틴은 대답했다.

“내 주여,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겠나이다. 우리를 도운 사람은 런던의 주교입니다. 그가 신약성경을 불태우기 위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후원금이며 위로금입니다.”

이에 대해 모어 경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역시 사실이구먼. 왜냐하면 주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주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했으니까.”

영어 신약성경을 6판까지 출간한 후에 틴데일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번역에 착수했으며 1530년에 창세기와 신명기 번역을 마쳤고 그 다음 해에는 모세오경을 마쳤다. 이와 동시에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읽고 읽어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경건하고도 학문적인 서문을 작성했다. 한편 1535년에 그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를 따라가며 많은 도움을 준 커버데일의 도움을 받아 신구약성경 전체를 인쇄했다. 이 책들을 영국으로 보냈을 때 그것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온 영국 민족의 눈에 얼마나 큰 빛을 가져다주었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처음에 틴데일은 영국에서 떠나 독일로 갔으며 거기에서 루터와 학식 있는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가졌다. 그 뒤 그는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내려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앤트워프에서 보냈다. 틴데일의 경건한 책들 특히 그가 번역한 영어 신약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해외로 퍼져나갔으며 경건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사람들 곧 일반 백성이 자기들보다 더 현명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진리의 빛으로 인해 자기들의 어둠의 일들이 분별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다.

그때 틴데일은 이미 구약의 신명기를 번역했으므로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이것을 인쇄하려

는 생각을 품고 함부르크행 배를 탔다. 그러나 네덜란드 해변에서 배가 좌초하는 바람에 그는 모든 책과 저술물과 필사본과 돈과 시간을 잃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른 배로 함부르크에 갔는데, 거기에는 약속한 대로 커버데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모세오경 전체를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1529년 부활절에서부터 12월까지 경건한 과부인 엠머슨 부인의 집에 머물면서 이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도시에 땀을 많이 흘리게 하는 병이 돌아서 함부르크에서의 일을 급히 끝내고는 다시 앤트워프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의 말로 된 영어 신약성경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셨을 때 틴데일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경을 번역하면서 서문을 통해 만일 자신의 번역에서 잘못이 발견된다면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그는 지식이 있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번역에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면 예의를 갖추어 부드럽게 자기들의 학식을 반영하고 수정할 부분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그 책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 성경 안에 수천 개의 이단 교리가 있으며 따라서 그 책을 수정할 필요도 없으며 완전히 과기시켜야만 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평민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이들은 성경이 평민들 모두를 이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틴데일의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왕에게 반기를 들게 할 것이라고 모함했다.

틴데일은 창세기 앞에 있는 서문에서 여러 가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자기의 번역본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와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저 위대한 책인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과,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인쇄상의 실수로 만일 거기에 'i' 라는 글자가 없는 구절을 발견하면,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큰 이단 교리라고 말했음을 보여 주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빼앗아 버리려는 영국 성직자들의 심술궂은 계략은 너무나도 엄청났다. 사실 이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틴데일이 말한 바와 같이 이 같은 그들의 시도는 세상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두고, 헛된 미신과 거짓 교리로 자기들의 야망과 탐욕을 만족시키며, 또한 자기들의 명예를 왕이나 황제보다 더 높이면서 백성들의 양심에 타도 앉아 사람들을 다스려 보려는 그들의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침내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왕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서둘러서 주후 1535년경에 틴데일이 번역한 신약성경을 금지시킨다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포고했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틴데일을 자기들의 그물로 사로잡아 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추진했는가는 이제 곧 밝혀지게 될 것이다.

런던의 등기부에서 모인 주교들과 토마스 모어 경은 앤트워프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틴데일에게 속한 것을 다 열심히 찾아내어 조사했다. 그들은 틴데일이 어디에서 누구를 접대했고, 그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그의 키는 얼마이며,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부지런히 연구하여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순교자들의 처형지로 유명한 스미쓰필드에서 화형 당하는 순교자들



성경을 불태우는 카톨릭 사제들

업적을 높이 세울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엔트워프에 있던 틴데일은 영국 상인의 집을 지키고 있던 포인츠라는 영국 사람의 집에서 거의 1년 동안 기거했다. 그런데 그곳에 필립스라는 영국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신사처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이유로 그곳에 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틴데일은 여러 차례 상인들과 함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기회를 통해 필립스는 그와 친숙해지게 되었고 틴데일은 곧바로 그를 크게 신뢰하게 되었으며 자기가 머무는 포인츠의 집으로 그를 데려가기도 했다. 또 그와 함께 한두 차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틴데일은 그와 함께 깊은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고 마침내 그를 포인츠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한편 그는 필립스에게 자신의 책들과 자신이 연구하는 것들 중 비밀에 속한 것들을 보여 주었다. 참으로 틴데일은 이 배신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인츠는 이 친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필립스와 알게 되었느냐고 틴데일에게 물었다. 그러자 틴데일은 그가 정직한 사람이며 매우 학식이 있고 사귀기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틴데일이 그에게 것처럼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본 포인츠는 아마도 필립스가 그의 친구들 중의 하나의 소개로 틴데일과 가까워졌으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필립스는 엔트워프에서 이십 마일 정도 떨어진 브뤼셀의 법정에 갔으며, 거기에서 다시 엔트워프로 오면서 황제의 변호사인 검사장과 다른 관리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로부터 삼사 일이 지난 후에 포인츠는 엔트워프에서 십팔 마일 정도 떨어진 읍에 가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그가 없는 동안 필립스는 포인츠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에게 틴데일이 안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 후 그는 다시 가서 브뤼셀에서 자기가 데려온 장교들을 집 근처 거리와 문 근처에 배치했다. 정오쯤에 그는 다시 돌아와 틴데일에게 가서 사십 실링을 빌려 달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침에 이곳과 메클린 사이에 있는 통로를 지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소.”

이에 틴데일은 사십 실링을 그에게 빌려 주었다. 사실 참으로 교묘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는 남을 잘 신뢰하는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에 필립스는 틴데일에게 이렇게 말했다.

“틴데일, 오늘 저녁에 내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합시다.”

그러자 틴데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가 저녁 먹으러 가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갑시다. 그곳에서는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틴데일은 필립스와 함께 나갔는데 포인츠의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길은 길고 입구가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갈 수가 없었다. 틴데일은 자기 앞에 필립스를 가게 하려 했으나 필립스는 자기의 인간됨을 보이기 위해 틴데일을 자기 앞에 가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키가 아닌 틴데일이 앞에 갔으며 키가 크고 잘 생긴 필립스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는 이미 문 양쪽에 장교들을 배치시켜 놓았고 이들은 입구에서 누가 나오는지 볼 수 있었다. 틴데일 뒤에 선 필립스는 자기 손으로 틴데일의 머리를 가리켜서 장교들이 데려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었다. 틴데일을 감옥에 가둔 후에 장교들은 것처럼 단순한 틴데일을 보고 큰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고 포인츠에게 말했다. 그들은 틴데일

을 황제의 변호사에게 데려갔으며 거기에서 그는 식사를 했다. 그 뒤 검사장이 포인츠의 집에 와서 틴데일의 소유물 곧 그의 책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져갔다. 거기에서 틴데일은 앤트워프에서 십팔 마일 정도 떨어진 빌보르드 성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 홀로 남게 된 틴데일은 변호사와 검사를 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또한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선포했으며 성 안에서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만일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이겠느냐는 진술을 했다. 마침내 심문이 시작되었고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아무런 변호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칙령으로 아우그스부르크 집회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주후 1536년 빌보르드 성에서 사형 집행 장소에 끌려 나와 화형대에 손발을 묶인 채 화형을 당했다. 이들은 그를 화형 시키면서 불로 인해 고통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에 동시에 목을 졸라매어 극도의 아픔을 느끼면서 사망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형대에서도 놀라운 열정을 갖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처형장의 틴데일



감옥에 있었던 약 2년 동안에 그가 간수와 간수의 딸과 및 그의 다른 가족들을 회심시켰다는 것을 보면,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자기가 번역한 신약성경에 관하여 자기의 대적들이 그 성경이 이단적 교리들로 가득 찼다며 심하게 트집을 잡았으므로 틴데일은 친구 프리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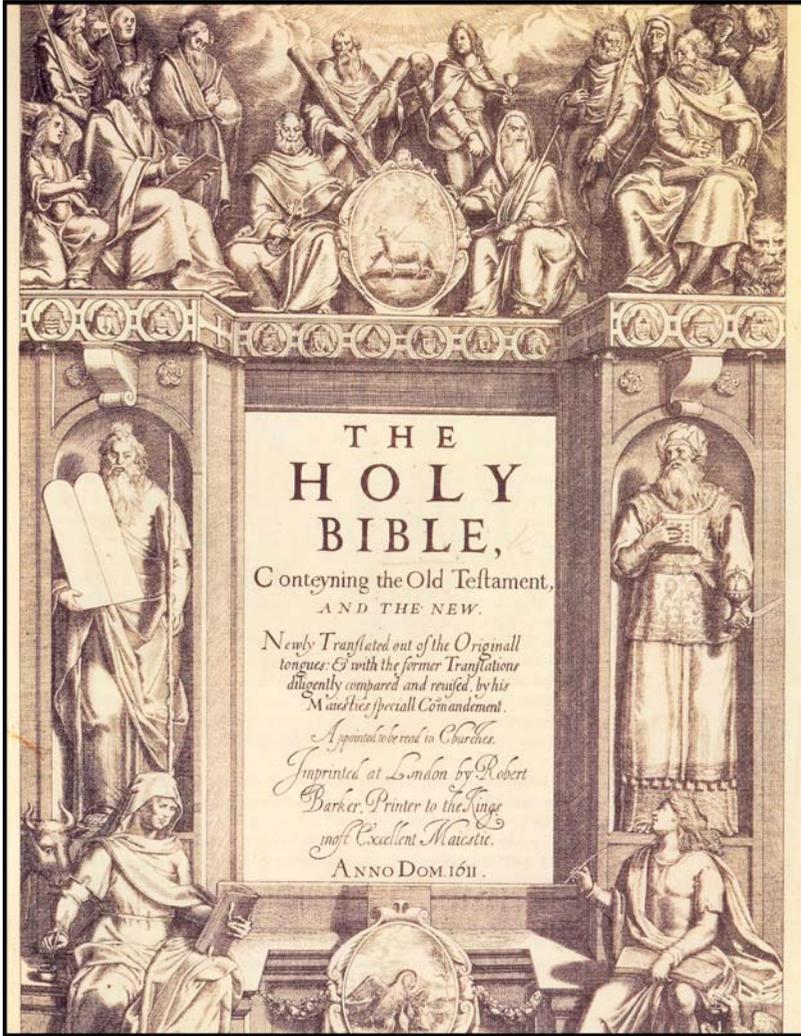
틴데일이 죽은 뒤 2년 만에 이 같은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 1538년에 영국의 헨리 8세는 각 교구의 교회에 큰 성경을 비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뒤 「커버데일 성경」, 「로저스 성경」, 「매튜 성경」, 「테버너 성경」, 「크랜머 성경」, 「비숍 성경」 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으나 사실 그 내용은 틴데일이 번역한 것과 거의 같았다. 또한 그의 번역은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에 70-80% 이상 그대로 반영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평민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려 했던 틴데일의 숭고한 정신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으로 이어졌고 18, 19세기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로도 이어져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부디 이 작은 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위클리프나 틴데일 그리고 왈덴시아파 사람들 같은 선구자들의 순교 정신을 본 받아 올바른 성경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커버데일 성경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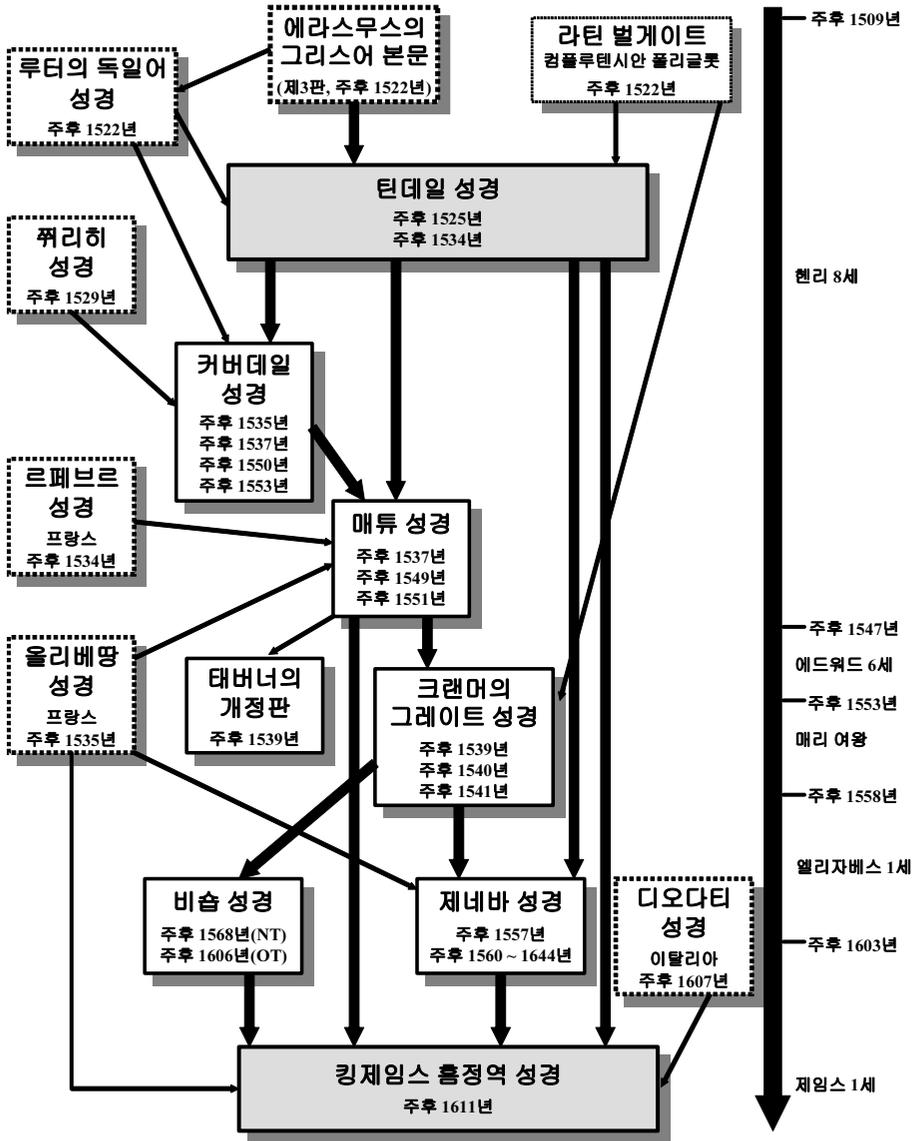


킹 제임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표지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맞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투스대역 한영성경, 기독교회사, 부록 1, pp.4, 1989).



〈틴데일 성경을 기초로 탄생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진리의 우수성 설명 및 입증

# 흠정역 성경의 4중 우수성

본 부록에서는 웨이트(D.A. Waite)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며」(*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와 리플링거(G. Riplinger)의 「현대 성서와 뉴에이지」(*New Age Bible Versions*) 및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흠정역 성경」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흠정역 성경」은 다음의 네 가지 면에서 최근에 나온 현대 역본들보다 우수하다.

- (1) 본문(Original Language Texts)
- (2) 번역자(Translators)
- (3) 번역 기법(Translation Technique)
- (4) 신학(Theology)

한 가지씩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앞서 위의 네 가지를 다음의 성경 구절과 비교하면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전 3:9-11)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성경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음의 요소들과 비교될 수 있다.

- (1) 주건축자(Master builder) : 사도 바울 등과 같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원본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
- (2) 다른 사람들(Builders) : 원본을 이용하여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
- (3)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가?(How to build) : 번역의 방법 및 기술
- (4) 건물을 무엇으로 세우는가?(How to build) : 번역의 재료, 즉 신학

하나님의 건물의 기초나 성경의 기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번역된 성경의 질이나 그 우수성은 위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심지어 그 안의 내용도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흠정역 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 질이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우수성

### (1.1) KJV의 구약 본문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롬3:1-2)

이 성경 말씀이 보여 주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졌고 이들 중에서 성경을 맡아 직접 손으로 복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성경기록관, Scribe)이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보관하고 복사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서기관들이 큰 대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등과 함께 큰 권세를 지닌 그룹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사 과정을 통해 성경 본문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런 필사본에 근거한 본문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게 마련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보존을 위해 선택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막연한 생각이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1960년, 밀러(H.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 줄에서 60 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 (3) 잉크는 반드시 검은 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온 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따라서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 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어느 정도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었으며 따라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으며,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 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흡정역 성경」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Traditional Masoretic Hebrew Text)이다. ‘마소라’라는 말은 주후 10세기경에 처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주전 400여 년 전부터 사용된 말로서 ‘전해져 내려오다’라는 뜻의 ‘마사르’(masar)에서 파생된 말이며 현재는 ‘전통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소라’라는 말은 명사로 쓰일 때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을 보존해 온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히브리어 자음 본문’은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ATER’를 보면 그 안에 ‘a’와 ‘e’라는 모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단어였다면 모음이 없는 ‘WTR’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물론 마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갖는 ‘WAITER’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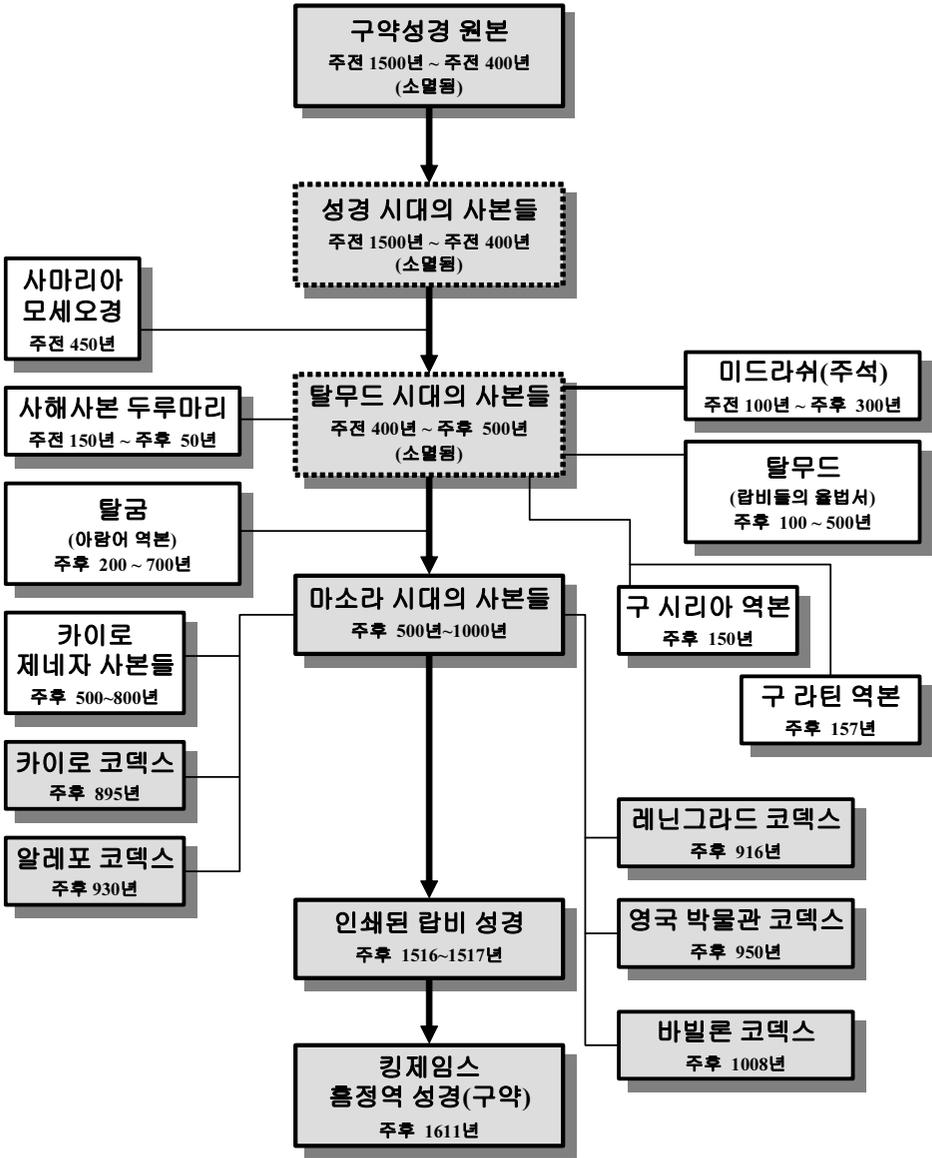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 주고 단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소라들은 모음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 자음 밑에 있는 ‘i’는 ‘아’(ah)라는 발음을 갖고, 점이 세 개 있으면 ‘에’(eh), 점이 두 개 있으면 ‘아이’(ay),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에에’(ee) 등으로 발음된다.

이 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마트레스렉션스’(matres lectiones)라 불리며, 이런 기호들을 통해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단어를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WATER’와 ‘WAITER’는 이런 기호들에 의해 구분이 된다. 그런데 마소라들은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도 모음 부호를 달아준 사람들이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이 매우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마소라들은 주후 500~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으며, 주후 600~700년경에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 〈1.2〉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구약 본문

신미국표준역(NASB)의 서문에는 번역자들이 키텔(Rudolph Kittel)의 「Biblia Hebraica」 최신판과 최근의 어휘 사전, 히브리어와 동일한 기원을 지닌 다른 나라의 말들, 그리고 사해사본 등에 기초해서 NASB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NASB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이용하여 번역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키텔의 1937년 판 「Biblia Hebraica」에는 페이지마다 각주에 15~20 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으며 따라서 구약성경 전체에 최소한 20,000~30,000 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할진대 과연 이것을 보존된 성경 본문이라고 할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성경>

수 있겠는가? 신국제역(NIV) 역시 키텔의 「Biblia Hebraica」와 사해사본, 사마리아 모세 오경, 본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된 고대 성경 기록관들의 전통, 본문 여백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본문들, 70인역,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등을 사용하여 구약 본문을 만들었다고 그 서문에 기록하고 있다.

한편 뉴킹제임스역(NKJV)은 그 서문에서 번역자들이 1967/1977년 판 「Stuttgart Edition of Biblia Hebraica」를 사용했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독일의 슈트트가르트에서 만들어진 본문이므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고 불리며 내용 면에서는 키텔의 「Biblia Hebraica」와 거의 비슷하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키텔의 본문은 「Biblia Hebraica Kittel」 즉 「BHK」라고 부르며, NKJV가 사용한 본문은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즉 「BHS」라고 부른다. 이 「BHS」 역시 「BHK」처럼 페이지마다 각주에 수정 사항이 들어 있고 구약성경 전체적으로는 20,000~30,000 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 NKJV의 역자들은 자신들이 종종 KJV의 근간이 된 1525년 판 「봄베르그 마소라 본문」과 비교하였으며, 70인역,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사해사본 등을 참고하고 그것들과도 비교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NKJV 역시 ‘전통 마소라 본문’ 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3〉 마소라 사본이라면 다 같은가?

새로 출간되는 성경들에 대한 광고를 보면 NIV, NASB의 역자들도 자신들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구약성경을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순진한 독자들은 이들도 KJV의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믿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소라 본문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KJV의 ‘마소라 본문’과 NIV, NASB 등 현대 역본의 ‘마소라 본문’이 매우 다르다. 이들이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시켜 KJV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KJV의 히브리어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히브리어 본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516-1517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출간한 구약성경을 「다니엘 봄베르그판」(*Daniel Bomberg Edition*)이라 부르며 또한 이를 「제1 랍비 성경」(*The Firs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후에 1524-1525년에 제2판이 출간되었는데 벤 카임(Jacob Ben Chayyim)이 이를 편집하였다 해서 이 본문을 「벤 카임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라 하며 이 본문은 「제2 대(大) 랍비 성경」(*The Second Grea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후 400여 년이 지나도록 표준 마소라 본문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KJV 역자들은 바로 이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구약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했다.

한편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주입시킨 키텔은, 1937년 자기가 편집한 마소라 성경인 「BHK」 제3판에서 KJV의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으로 바꾸어 버렸다. 사실 1906년과 1912년에 키텔이 출간한 제1판과 제2판에서는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 사용되었는데 1937년에 출간한 제3판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한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으로 갑자기 구약성경의 출처가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키텔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20,000~30,000 군데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주후 100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KJV의 기초가 된 ‘전통 마소라 본문’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그 이후 1967년과 1977년에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키텔의 「BHK」를 개정한 「BHS」가 출간되었는데 이 마소라 성경 역시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한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KJV를 제외한 NASB, NIV, 신개역표준역(NRSV), NKJV 등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이 구약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한 마소라 본문이 유대인들의 '전통 마소라 본문'인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중요한 루돌프 키텔의 「BHK」와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지인 독일 슈트트가르트의 「BHS」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학 대학에서 성경 본문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성경의 경우 어떤 본문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으신 성경 말씀이 비록 자필 원본이 아니고 필사본이었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바(it is written)'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말씀'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이 보존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손 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은 것임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 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란다(마5:17-18; 눅24:27; 눅24:44 등).

#### 〈1.4〉 KJV의 신약 본문

함정역 신약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본문」(*Textus Receptus, TR*)이다. 「공인본문」은 누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누구나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본문」(共認本文, *Received Text*)이며 따라서 이것을 「수용본문」(收容本文)이라고도 부른다.

「공인본문」은 KJV 신약 성경 번역의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1598년에 출간된 베자의 제5판이 사용되었다. 「공인본문」의 특징은 우선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방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 (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며,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본문'이라고도 한다.

「함정역 성경」 번역에 사용된 그리스어 본문은 상당수의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조합되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베자(Theodore Beza),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와 엘제비어 혹은 엘지버 형제(Elzevir Brothers), 아브라함과 보나벤퉈(Abraham and Bonaventure)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에라스무스는 다섯 판에 걸쳐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다. 1516년의 제1판에 이어, 1519년에는 마틴 루터가 그의 역사적이고 매우 중요한 독일어 번역판에 사용했던 제2판이 나왔다. 그 뒤 그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판은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매우 훌륭했고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모범 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스테파누스는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1년에 모두 네 판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다. 베자도 1565년, 1582년, 1588년, 그리고 1598년에 걸쳐 여러 판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다.

KJV의 역자들은 1598년의 베자 성경과 1550년과 1551년의 스테파누스 성경을 주요한 출전으로 사용했다. 1611년에 KJV가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엘제비어 형제가 1624년, 1633년, 그리고 1641년에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했는데 이들은 에라스무스의 표준을 따랐던 베자의 판을 충실히 따라가며 본문을 편집했다. 한편 이들은 1633년에 출간된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서문에다 지금까지의 본문들을 개선한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문구를 새겨 넣었는데, 그 문구는 라틴어로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이며, 그 뜻은 “사람들이 수용한 책으로부터 입수한 본문에 따르면...”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 「공인본문」 혹은 「수용본문」(*Received Text* 혹은 *Textus Receptus*)이라는 명칭이 탄생하였다.

### 〈1.5〉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신약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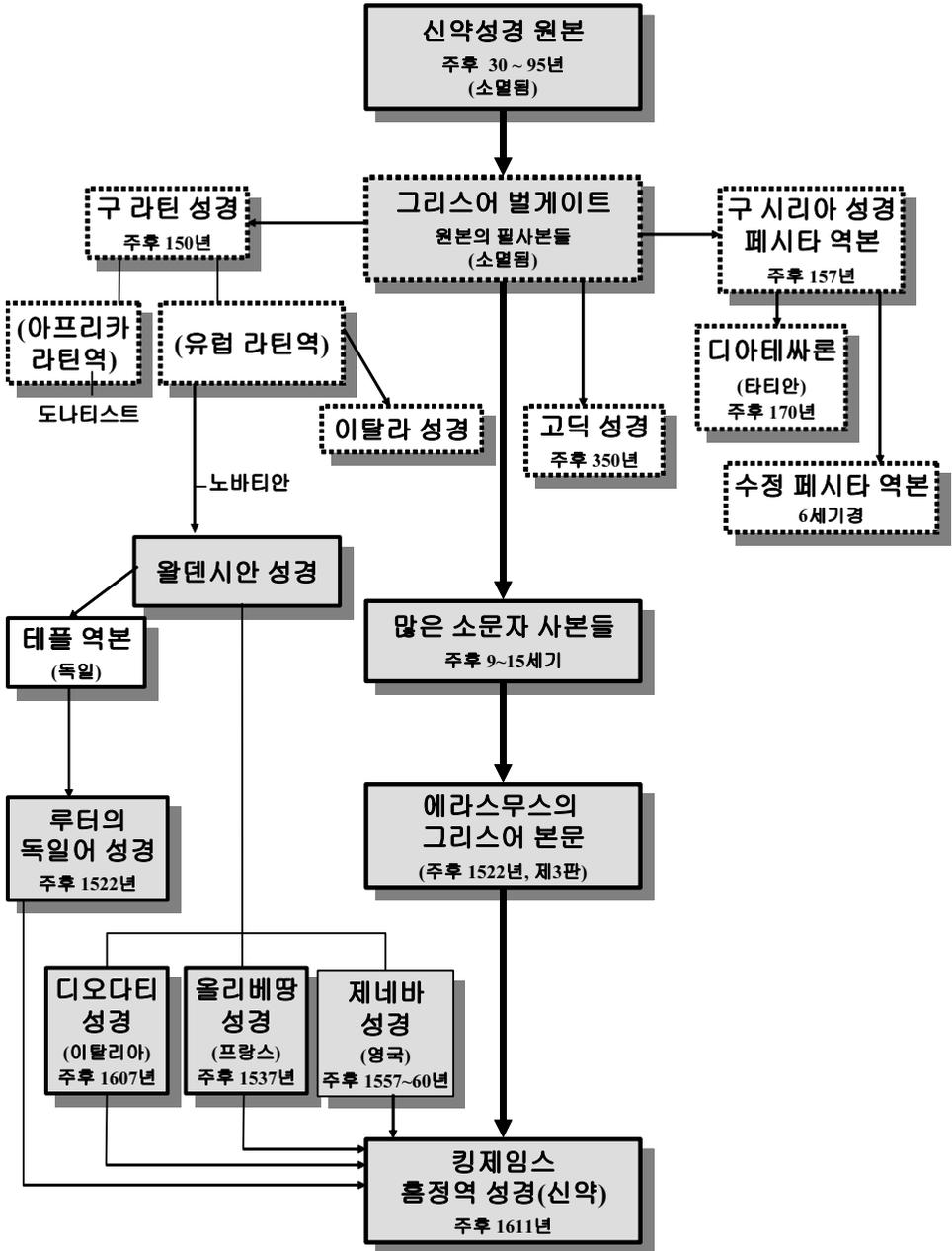
사도 시대부터 근 1900년 동안 신약 교회는 「공인본문」만을 사용해 왔으며 특히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에는, 비록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60년 동안 다른 영어 성경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또한 KJV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보편적 성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한 성경’이라는 인식 하에 ‘권위역본’(*Authorized Version*)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불안을 느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본문 비평이라는 도구를 도입하여 성경을 한낱 역사책처럼 취급함으로써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으며, 이를 위해 허영에 들뜬 신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1881년에 영국 성공회에 속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두 명의 학자들은 「공인본문」에서 무려 5,604 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본문」이라는 개악된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본문」에서 빼거나 변경시키거나 추가한 단어들은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를 차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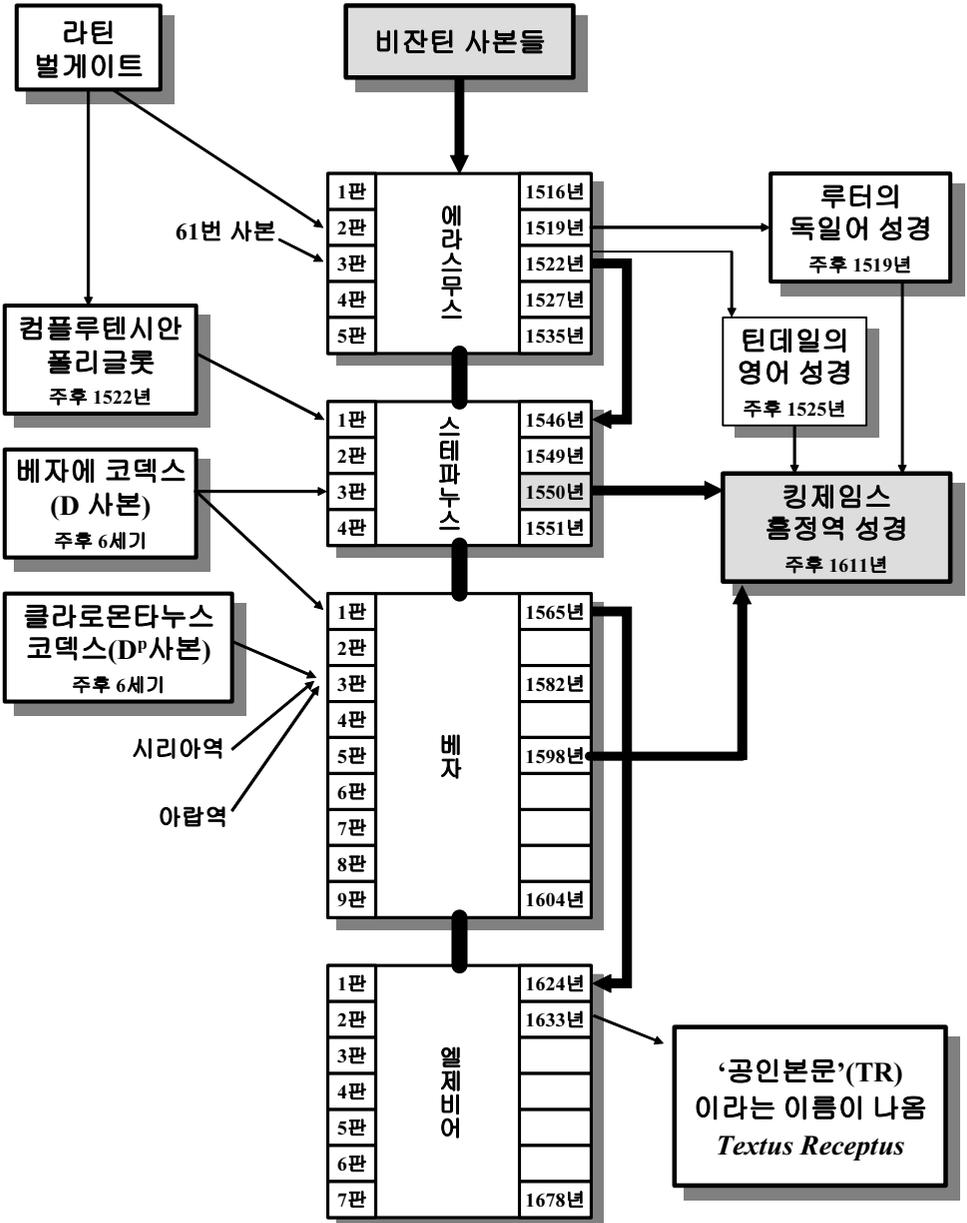
웨스트코트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으며 호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다.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강신술 등에 심취한 영성주의자들이요, 지옥이나 마귀 등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창세기 기록을 신화로 생각한 인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변경시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리스어 「공인본문」과 「수정본문」 비교〉

	공인 본문	수정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 군데 수정: (1,952 군데 삭제, 467 군데 추가, 3,185 군데 변경)
총 페이지 수	647	9,970 단어 변경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 단어 변경
변개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개 분량	없음	총 46 페이지에 해당함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성경>



〈공인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성경〉

1988년에 무어만 박사는 「공인본문」의 단어와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네슬레/알란드판」(Nestle/Aland Edition)의 그리스어 본문의 단어 수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판」의 본문이 「공인본문」에 비해 무려 2,886 단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본문」이 1,952 군데를 삭제한 데 비해 네슬레와 알란드의 본문은 그보다 934 단어를 더 삭제하였다. 이만큼 단어가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신약성경에서 베드로 전후서에 상당하는 분량이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현대 역본을 읽게 되면 그만큼 짧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한편 이들은 단순히 단어만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 자체를 변경시켜 뉴에이지 신학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수학에서 평면이나 입체를 배울 때 두 개의 사물이 같은가 다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리를 이용한다.

주어진 어떤 것과 동일한 두 개의 사물은 서로 동일하다.

이 규칙을 성경 번역에 적용해 보면 NIV든 NASB든 그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공인본문」과 5,600 군데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1900년 동안 보존해 온 「공인본문」에 근거를 둔 KJV와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NIV나 NASB를 손에 들고 이것이 영어로 보존된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 장의 표는 신약성경의 각 책에서 200여 구절을 발췌하여 여러 역본의 순수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의 매 오른쪽 열은 비교대상인 200 구절 중에서 변경된 구절 수를 나타내는데 「공인본문」에 기초한 「루터 성경」과 「흠정역 성경」을 빼고는 모든 현대 역본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박사성경」(정동수 저,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출간)을 참조하기 바란다.

## 〈1.6〉 역사적 증거들

「공인본문」(TR)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본문이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이 증명한다.

### A. 주후 33-100년 사이의 사도 교회 시대

- (1) 초기의 사도교회들이 다 TR을 사용했다.
- (2) 팔레스타인에 있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3) 안디옥의 시리아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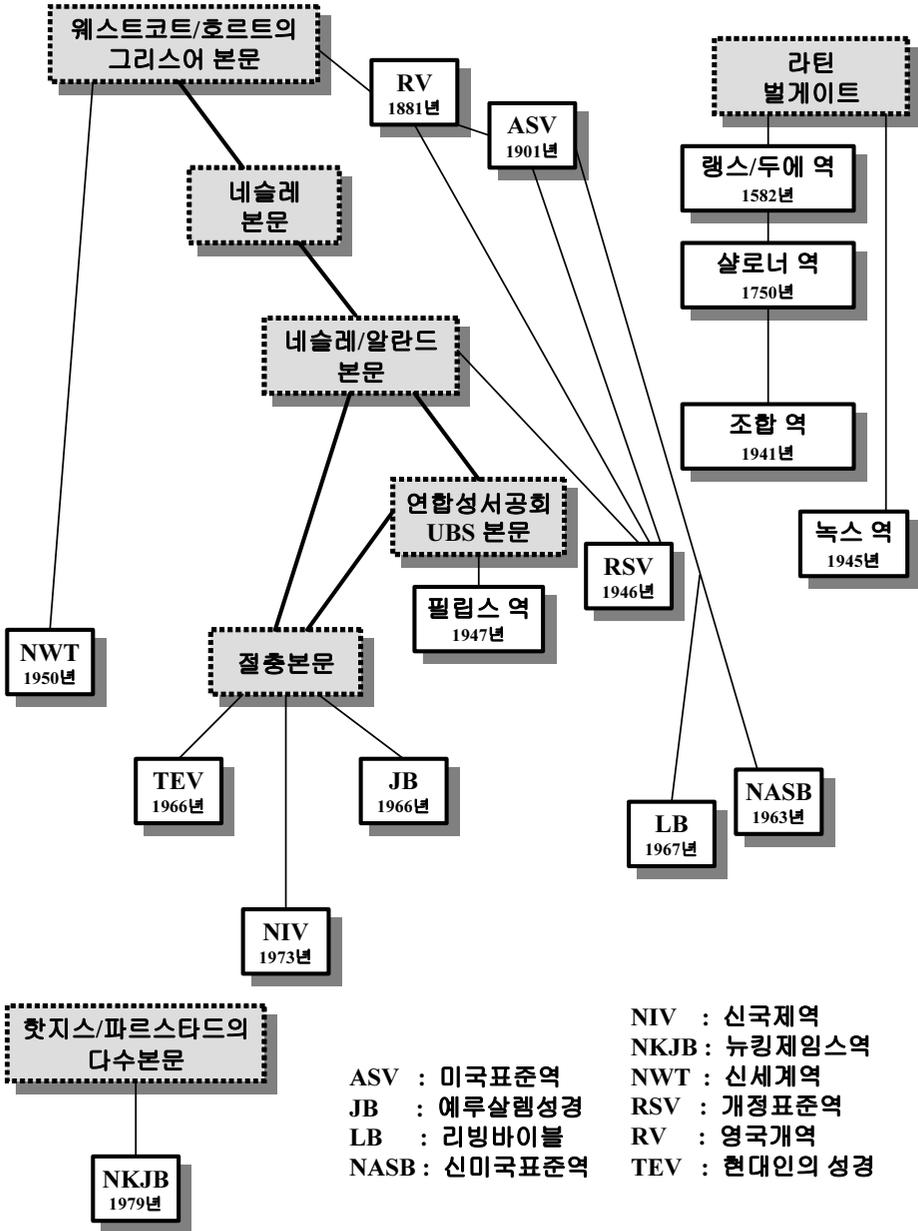
### B. 주후 100-312년 사이의 초대 교회 시대

- (4) 페시타 역본이 TR을 사용했다.
- (5) 파피루스 66번이 TR을 사용했다.
- (6) 북이탈리아의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7) 남프랑스 골 지방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8) 영국의 켈트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9)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0) 왈텐시아파 사람들의 교회 이전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11) 왈텐시아파 사람들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신약성경 역본 비교: 200 구절〉

	신약성경역본	변개/ 삭제
1	「한글개역성경」( <i>Korean Revised Version</i> )	177
2	「신영어역」( <i>New English Bible, NEB</i> )	197
3	「신국제역」( <i>New International Version, NIV</i> )	195
4	「개정표준역」( <i>Revised Standard Version, RSV</i> )	189
5	「버클리역」( <i>Berkeley Version</i> )	185
6	「위마우스역」( <i>Weymouth's in Modern Speech</i> )	184
7	「신미국표준역」( <i>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V</i> )	183
8	「현대인의 성경」( <i>Good News for Modern Man</i> )	182
9	「윌리엄스역」( <i>Williams' New Testament</i> )	180
10	「패닌역」( <i>Ivan Panin's Numeric New Testament</i> )	180
11	「굿스피드역」( <i>Goodspeed's American Translation</i> )	179
12	「모팻역」( <i>Moffatt's New Translation</i> )	175
13	「우에스트역」( <i>Wuest's N.T.</i> )	169
14	「증보역」( <i>Amplified New Testament</i> )	165
15	「20세기역」( <i>Twentieth Century N.T.</i> )	161
16	「필립스역」( <i>Phillip's New Testament</i> )	142
17	「다비역」( <i>Darby's Translation N.T.</i> )	138
18	「리빙바이블」( <i>Living Bible Paraphrased</i> )	130
19	「신조합역」( <i>New Confraternity N.T.</i> )	119
20	「놀리역」( <i>Norlie's New Translation N.T.</i> )	62
21	「람사역」( <i>Lamsa's Eastern Text N.T.</i> )	49
22	「웨슬리역」( <i>John Wesley's Translation N.T.</i> )	43
23	「루터의 독일어 성경」( <i>Martin Luther's German N.T.</i> )	0
24	「영어 킹제임스성경」( <i>King James Version N.T.</i> )	0

(마1:25; 5:44; 6:13; 6:27; 6:33; 8:29; 9:13; 12:35; 12:47; 13:51; 15:8; 16:3; 16:20; 17:21; 18:11; 19:9; 19:17; 20:7; 20:16; 20:22; 21:44; 23:14; 25:13; 27:35; 28:2; 28:9; 막1:1; 1:14; 1:31; 2:17; 6:11; 6:16; 6:33; 7:8; 7:16; 9:24; 9:42; 9:44; 9:46; 9:49; 10:21; 10:24; 11:10; 11:26; 13:14; 13:33; 14:68; 15:28; 16:9-20; 눅1:28; 2:33; 2:43; 4:4; 4:8; 4:41; 6:48; 7:31; 9:54; 9:55; 9:56; 11:2-4; 11:29; 17:36; 21:4; 22:20; 22:31; 22:64; 23:17; 23:38; 23:42; 24:3; 24:6; 24:12; 24:49; 24:51; 요1:14; 1:27; 3:15; 4:42; 5:3; 5:4; 6:47; 6:69; 7:53; 8:16; 9:35; 11:41; 16:16; 17:12; 20:29; 행2:30; 7:30; 7:37; 8:37; 9:5,6; 10:6; 15:18; 16:31; 17:26; 20:25; 20:32; 23:9; 24:6-8; 24:15; 28:16; 28:29; 롬1:16; 1:29; 8:1; 9:28; 10:15; 10:17; 11:6; 13:9; 14:6; 14:21; 15:29; 16:24; 고전1:14; 5:7; 6:20; 7:5; 7:39; 10:28; 11:24; 15:47; 16:22; 16:23; 고후4:6; 4:10; 5:18; 11:31; 갈1:15; 3:1; 3:17; 4:7; 6:15; 6:17; 엡3:9; 3:15; 5:30; 6:1; 6:10; 빌3:16; 골1:2; 1:14; 1:28; 2:11; 3:6; 살전1:1; 2:19; 3:11; 3:13; 살후1:8; 딤펑전1:17; 2:7; 3:16; 4:12; 6:5; 딤펑후1:11; 4:1; 4:22; 딤펑1:4; 몬1:6; 1:12; 히1:3; 2:7; 3:1; 7:21; 10:30; 10:34; 11:11; 약5:16; 벰전1:22; 4:1; 4:14; 5:10; 5:11; 벰후2:17; 3:9; 요일1:7; 2:7; 4:3; 4:9; 4:19; 5:7-8; 5:13; 유1:25; 계1:8; 1:11; 2:13; 5:14; 6:1; 8:13; 11:17; 12:12; 12:17; 14:5; 16:17; 20:9; 20:12; 21:24)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본문과 현대 역본들>

C. 주후 312-1453년 사이의 비잔틴 시대

- (12) 4세기의 「고딕역」이 TR을 사용했다.
- (13) 4, 5세기의 'W 코텍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4) 5세기의 'A 코텍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5) 5,255 개의 사본 중 5,210 개의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6) 그리스 정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7) 현 시대의 그리스 정교회 역시 오직 TR만을 사용한다.

D. 주후 1453-1831년 사이의 초기 현대 시대

- (18)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9)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0) 1522년의 「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 TR을 사용했다.
- (21)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2) 1525년의 「틴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3) 1535년의 프랑스의 「올리베땅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4) 1535년의 「커버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5) 1537년의 「매튜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6) 1539년의 「태버너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7) 1539-1541년의 「그레이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8) 1546-1551년의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9) 1557-1560년의 「제네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0) 1568년의 「비숍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1) 1569년의 「스페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2) 1598년의 「베자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3) 1602년의 「체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4) 1607년의 디오다티의 「이탈리아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5)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6) 1624년의 엘제비어(혹은 엘지버) 형제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1.7〉 사본들의 증거

1967년도까지 존재한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본의 수는 모두 5,255 개이다. 이런 사본들에는 81 개의 파피루스 사본과 267 개의 대문자 사본, 2,764 개의 소문자 사본, 2,143 개의 기도문(혹은 교독문) 등이 있다. 다음의 표는 이런 사본들이 어떤 본문을 지지하는지 잘 보여 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본문」을 지지하며 이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공인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필사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잘 보여 준다.

#### (사본들의 본문 지지도)

사본 종류	개수	공인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웨스트코트/호르트 및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파피루스	81	75(85%)	13(15%)
대문자 사본	267	258(97%)	9(3%)
소문자 사본	2,764	2,741(99%)	23(1%)
기도문 등	2,143	2,143(100%)	0(0%)
합계	5,255	5,210(99%)	45(1%)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는 「공인본문」과는 달리 1898년에 처음 만들어진 「네슬레판」은 1992년까지 무려 26번이나 판을 개정하여 평균 3.1년마다 새로운 판이 개정되어 나왔다. 이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뜯어고치려 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배도한 무리들이다.

특히 알란드(Kurt Aland)는 배도한 독일인으로 독일의 뮌스터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공인본문」을 믿지 않으며 「네슬레/알란드판」 편집위원회의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의 90% 정도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 그는 「공인본문」과 일치하는 사본을 발견할 때면 무조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본이 과거의 어떤 사본을 베낀 형편없는 사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며 사본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TR을 지지하는 사본들은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 그 개수에 상관없이 단 하나의 증거로만 사용하려 한다.

이들이 이 같은 철학을 수용한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주후 250~350년 사이에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려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본들을 모두 없애고 「공인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엉뚱한 이론을 폈는데 알란드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이같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상상 속에서 꾸며 낸 헛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날조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로마 카톨릭 주위에 심취되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영성주의자들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금은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에 근거를 둔, 즉 전체 사본 중 1%에 해당하는 사본에 근거를 둔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 2.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우수성

### 〈2.1〉 KJV 번역자들의 우수성

KJV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57명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문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고 관료나 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개의 언어에 정통해야만 했다. 이들의 원어 실력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15, 16세기경 조선 왕조에서 출세를 하려면 한문 실력이 뛰어나야만 했는데 따라서 가문 있는 집안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의 중국 고전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게 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국 고전을 읽어 술술 외는 사람과 성장한 뒤 대학에 가서 중국 고전을 공부한 20세기의 중국 고전 학자와 과연 누가 더 중국 고전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자명하지 않은가?

영어 성경 번역자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로 된 신약성경과 그리스어 고전을 읽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읽고 술술 외우는 사람과 장성하여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배운 현대 학자와 과연 누가 더 원어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0세기의 현대인들과는 달리 15, 16세기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오락이 그리스어 놀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현대 원어학자들을 KJV가 출간되던 시대의 학자들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자그마치 그 당시 최고의 석학 57명이 모여서 번역 작업을 했다면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만 할 것인가?

KJV 번역자들이 기술한 「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The Translators To the Reader*)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 이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진리가 없는 경건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 기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것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2) 이들은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 창고로서 거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또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의 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거나 혹은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지는 만나 단지나 기름병이 아니며 누구나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양식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다.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요, 더욱이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3) 이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만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껍질을 까서 열매를 먹는 것과

갈고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를 보는 것과 같다. 또한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길는 것과도 같은 작업이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을 경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물을 길 수 있는 두레박이 없는 우물가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4)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의 욕구를 자제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부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경멸하지 말라. 돼지처럼 귀한 보물을 밟지 말라. 또한 개처럼 거룩한 것을 물어뜯지 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분께서 손을 내미사 당신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 〈2.2〉 NIV, NASB 등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열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책을 저술하는 작가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든, 혹은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든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이 구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번역에 임한 KJV의 역자들의 작품과 성경을 단지 하나의 고대 작품으로 혹은 신화 정도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번역한 NIV 등 현대 역본들 편집자들의 작품이 어떨지 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제 현대 역본 편집자들과 이들에게 본문을 제공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상 및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자.

• 「그리스어 신약성경 수정본문」의 저자인 호르트의 창세기관, 진화론관, 연옥관, 속죄관, 세례관 등을 살펴보자.

나는 에덴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코울릿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다윈에 대해 읽어 봤소? 그 이론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소. 어찌 됐든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그러나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것이요.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무어라 할지는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요.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요.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세 가지 주요한 논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영원이 기간과는 상관없다; (2) 회개의 힘은 현생에만 제한되어있지 않다; (3)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영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 시대 사람들이 이 중 둘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즉 연옥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학을 영적이 아닌 것으로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 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영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인임을 보장해 준다.

• 「그리스어 신약성경 수정본문」의 또 다른 저자인 웨스트코트의 창세기관, 기적관, 기도관 등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세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인간적으로 말해서, '태양의 떠오름'에 대해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당신이 느낀다면, 모세와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분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셨어야만 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사실 나는 시(詩)가 역사보다 수 천 배나 더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읽어 본 적이 없으나 직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했다.

나는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몇몇 다른 감독들과 의논했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도 관하여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공식예배에서 교회 전체와는 별개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러나 개인기도 때에는 그러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

• NIV의 주 편집자 팔머(Edwin Palmer)는 자신이 편집한 NIV가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NIV는 현재 몇몇 정통 기독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큰 오류, 즉 '거듭남이 오직 믿음에 달려 있으며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개념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분명한 구절은 사실상 성경에 거의 없다.

• 자신의 동료들에 의해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의 중보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NASB의 창시자는 「동서양 저널」(*East-West Journal*)이 '새 시대 운동과 동서양의 합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칭했던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새 역본의 편집자는 자신이 변개시킨 믿음의 신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변화들 - 즉 자신이 변개시킨 것들 - 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들은 반드시 새로운 신학의 보물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 '새' 역본 편집자들이 그리스어 어원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참고 사전은 히틀러의 추종자(루돌프 키텔)가 집필한 것으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에 관련된 소송에 회부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NIV 편집위원회의 몰렌코트 박사(Dr. Virginia Mollencott)는 "동성연애(Lesbianism)는 항상 나의 생활의 일부인이 되어 왔다."고 자랑스레 말한다(1991년 6월호 성공회 「위트니스」지). 그녀가 동성연애를 찬성하기 위해 저술한 「동성연애는 내 이웃인가?」라는 책은 성경이 '매춘', '폭력에 의한 갱들의 강간' 등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들만을 책망하며, '동성끼리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실 그녀의 이 같은 사상이 그대로 NIV에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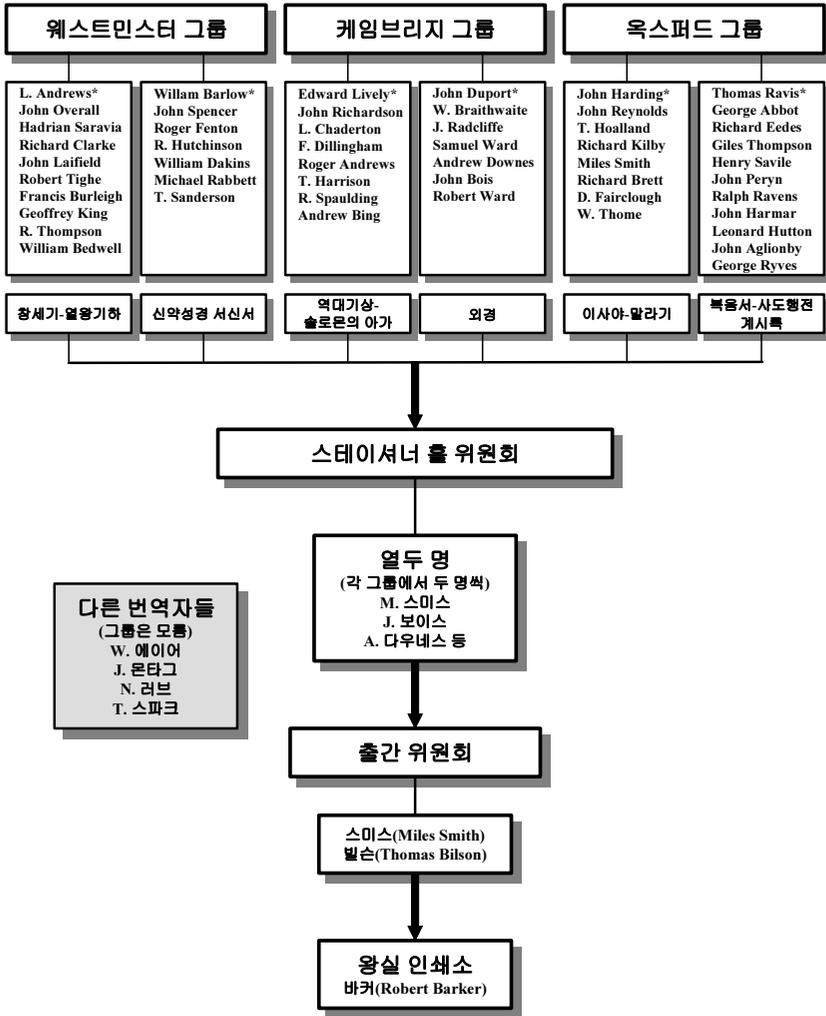
결국 '의(義)를 '부(副)로, '십자가'를 '왕관'으로, '새로운 창조'를 '모방'으로 대치시킨 '새로운' 역본들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태동되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 역본들의 사악한 열매이다.

### 3. 킹제임스 성경 번역 방법의 우수성

#### <3.1> KJV의 번역 방법

KJV를 번역한 번역자들은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취한 번역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팀워크를 이루어 번역을 했다. 57명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번역했고 각 그룹은 두 조로 나뉘었으며 한 조의 인원은 대략 7명 정도였다.

- (1) 웨스트민스터 그룹(2개조) ; (2) 옥스퍼드 그룹(2개조) ; (3) 케임브리지 그룹(2개조)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KJV의 경우 각각의 번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는 것이다. 즉 57명이 모두 자기 스스로 맡은 것을 번역해야 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현대 역본의 경우 편집위원 중에서 소위 실력이 있다는 몇몇 학자들이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을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 주거나 혹은 기껏해야 교정을 보거나 다른 역본들과 비교하거나 하는 등 사소한 일을 한다.

그러나 KJV의 경우에는 57명의 역자가 다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에서 스스로 번역을 해야 했으며 그중 어떤 이들은 번역을 끝내기도 전에 죽기도 했으나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남은 50여 명의 학자들이 그 작업을 인수하여 스스로 번역을 했다.

한편 이들은 팀워크로 일을 하면서 한두 사람의 사사로운 의견을 배제시키고 오직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을 신실하게 옮겼다. 팀워크를 통한 번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그룹의 첫째 조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12권의 책을 번역했는데 최종적인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이 조에 속한 7명 모두가 각각 12권 모두를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본문을 최소한 7번 읽어야 함).
- (2) 그 뒤 7명이 모여서 검토했다(최소한 1번을 같이 읽음).
- (3) 그 뒤 다른 조로 보냈다(나머지 다섯 조에서 최소한 5번을 함께 읽음).
- (4) 끝으로 각 조에서 두 명씩 선출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했다(이 과정에서 최소한 2번을 읽음).

이런 철저한 과정을 거쳐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원어로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14번 이상 검토하고 읽고 번역한 결과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즉 1611년 처음으로 발간된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흠정역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과연 현대 역본 편집자들 중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하여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또한 그들이 과연 자기들이 만든 역본을 KJV의 역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14번 이상 읽고 검토했단 말인가?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NIV 등은 컴퓨터 시대에 출간되었지만 나오기가 무섭게 개정되고 있다.

마차에 원고를 싣고 다니며, 직접 손에 펜을 잡고 잉크로 글을 썼던 17세기 초반에 나온 성경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직접 번역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KJV 역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단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완전한 말씀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한다.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부터 KJV로 번역될 때까지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되었으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으며,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손 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성경으로 읽고 인정하셨다.

### 〈3.2〉 KJV의 문자적 일치 및 형식적 일치 기법

KJV 번역자들은 ‘문자적 일치 방법’(Verbal equivalence method)과 ‘형식적 일치 기법’(Formal equivalence technique)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 및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원어의 형식과 단어 자체가 거의 그대로 영어로 옮겨질 수 있다. 따라서 역으로 번역하게 되면 원래의 글로 되돌아가게 된다. 물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법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어와 원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 및 형식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There is one God.”

「한글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럼 한글개역성경말씀을 영어로 역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God is one person.”

이제 원래의 영어 구절과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 둘이 서로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 되고 만다. 즉,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다. 삼위일체이신 그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저히 여호와의 증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문자 및 형식의 일치를 이루는 번역이 될까? 그런 번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라.”(흠정역)

이렇게 번역하면 어색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라. 그러면 이 같은 번역이 옳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마귀들이 무엇을 믿고 떠는가? 「개역성경」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떠는가? 아니면 「흠정역 성경」대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떠는 것인가? 그들이 떠는 이유는 자기들을 심판하실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어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기록하고자 했던 내용인 것이다. 한편 이 구절에 나오는 ‘한’(one)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I and my Father are one)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쓰신 바로 그런 의미의 ‘하나’(one)로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위의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에서 문자 및 형식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KJV의 역자들은 바로 이 같은 문자 및 형식의 일치 기법을 준수하여 원어에서 영어로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번역했다.

### 〈3.3〉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동적 일치 기법

한편 현대 역본 편집자들은 대개 문자 및 형식의 일치를 무시하고 소위 ‘동적 일치 기법’(Dynamic equivalence technique)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했다. ‘동적’이라는 말이 ‘움직이는, 변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식에 상관없이 번역을 하게 된다. 특히 소설을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바꾸어 뜻만을 전하는 번역을 우리는 ‘의역’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 예로 「리빙바이블」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동적 일치 기법’의 창시자는 누구일까? 이 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바로 사탄 마귀였다. 동적 일치 기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3.1) 변개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것을 변개시켜 이렇게 말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 이것이 바로 동적 일치 기법의 폐해이다.

### (3.3.2) 추가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것에다 자기의 말을 추가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시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최근에 이같이 사악한 ‘동적 일치 기법’을 성경 번역에 도입한 장본인은 니다(Eugene Nida)이다. 그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미국성서공회, 연합성서공회 등을 위해 일해 왔으며 온 세상 속으로 이 기법을 파급시킨 장본인이다. 그의 노력을 통해 1975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공식적으로 ‘동적 일치 기법’을 채택했고 그 뒤 1978년에 나온 NIV도 이 기법을 채택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연합성서공회는 이 기법을 이용한 성경만을 출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동적 일치 기법’을 이용하여 말씀을 변개시키고 가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기록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 (3.3.3) 추측

현대 역본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법 중 하나는 추측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가 그들의 추측 번역 방법을 잘 보여 준다. KJV와 ‘전통 마소라 본문’은 창세기 4장 8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KJV)

그런데 NIV는 이렇게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로 가자...”(NIV)

히브리어 본문에는 NIV의 밑줄 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NIV 편집자 콜렌버거는 1979년에 발간된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 성경에다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각주를 달았다.

여기 있는 히브리 본문과 번역은 참고문헌 1번에 있는 여러 가지 초기 번역들을 기초로 해서 추측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의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신학이나 신념에 맞게 추측하여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 고쳤고 「BHS」의 경우 구약에서만 무려 20,000~30,000군대를 수정하였다.

## 〈3.4〉 읽기 쉬운 성경

많은 광고들이 “KJV는 확실히 않으며 혼동을 일으키고, 대개의 경우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킁킁한 혼동의 구름을 만들어 낸다. 반면에 그들은 NIV의 ‘읽기 쉬운 현대 영어’를 극구 칭찬한다. 흑색선전을 통해 단순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 제작된 전면 칼라 광고지들은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압하고 있다.

그러나 플레쉬-킨케이드(Flesch-Kincaid) 연구사의 영어 등급 수준 지표는 새 역본들의 참 색깔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 주며 이 문제의 흑과 백을 엄격하게 보여 준다. 26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KJV는 이 중 23 가지에서 새 역본들보다 더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등급 수준} = (0.39 \times \text{문장당 평균 단어 수}) + (11.8 \times \text{단어당 평균음절수}) - 15.59$$

물론 등급 수준이 낮을수록 문장이 쉽게 쓰인 것이다. 비교를 위해 먼저 신구약성경의 첫째 책과 마지막 책의 첫 장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 경우에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등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들과 마침표로 끝나는 모든 구절을 문장으로 간주했다.

다음의 표가 보여 주듯이 결과는 KJV가 다른 어떤 현대 역본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KJV의 등급인 5.8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KJV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NIV의 8.4는 미국 학계의 8-9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야 NIV를 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읽힘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세 종류의 책들(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에서 한 장씩을 뽑아 더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역시 KJV가 새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쉽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1〉

	KJV	NIV	NASB	TEV	NKJV
창세기 1장	4.4	5.1	4.7	5.1	5.2
말라기 1장	4.6	4.8	5.1	5.4	4.6
마태복음 1장	6.7	16.4	6.8	11.8	10.3
계시록 1장	7.5	7.1	7.7	6.2	7.7
등급수준평균	5.8	8.4	6.1	7.2	6.9

〈플레쉬-킹케이드 영어등급수준지표 2〉

	KJV	NIV	NASB	GNMM (TEV)	NKJV
요1:1-21	3.6	3.6	4.2	5.9	3.9
갈1:1-21	8.6	9.8	10.4	6.7	8.9
약1:1-21	5.7	6.5	7.0	6.0	6.4

그렇다면 KJV가 다른 현대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KJV가 한 개나 두 개의 음절로 된 단어들 사용하는 반면에 새로운 역본들은 여러 개의 음절로 된 복잡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역본들의 ‘고집 세며, 교만한’ 어휘들은 단순한 성도들과 죄인들로부터 구원의 소망을 숨겨 버린다.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고후3:12)

단순하며 분명한 성경 구절에서 NASB는 낱빛의 검푸른 단어들을 사용하며,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혼동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생색을 내는 듯한 어휘들을 사용한다.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정확성과 단순성’을 위해 KJV를 읽어야만 할 것이다. 새 역본을 추천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세뇌시켜 ‘거짓말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느 성경이 더 읽기 쉬운지 스스로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만 한다.

〈3.5〉 외우기 쉬운 성경

이번에는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경 구절이 적당한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119:11)

성령님의 칼인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한 문장 구조와 한 음절로 된 단어들은 이같이 암송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막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그래서 새 역본들의 경우에는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한 공격용 칼이 매우 어려운 단어들의 칼집 안에 갇혀 있다. 대개의 경우 새 역본들은 무엇을 말하려 할 때마다 KJV보다 두 배나

많은 단어나 음절을 사용한다. 다음은 KJV와 NASB를 간략하게 비교한 것이다.

### 〈KJV와 NASB의 음절 수 비교〉

NASB		KJV
Question those who have heard what I spoke to them (10 단어/11 음절)	요18:21	Ask them which heard me, (5 단어/5 음절)
Do not be afraid any longer but go on speaking (10 단어/11 음절)	행18:9	Be not afraid but speak (5 단어/6 음절)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8 단어/9 음절)	요21:5	have ye any meat (4 단어/5 음절)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sick (12 단어/14 음절)	약5:15	the prayer of faith shall save the sick (8 단어/8 음절)
flashes of lighting and sounds and peals of thunder (9 단어/12 음절)	계4:5	lightings, and thunderings, and voices (5 단어/9 음절)
angel who had seven plagues which are the last (9 단어/11 음절)	계15:1	angels having the seven last plagues (6 단어/9 음절)
총 58 단어/71 음절		총 33 단어/42 음절

이 표가 잘 보여 주듯이 NASB는 KJV에 비해 약 2 배나 많은 음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역본들의 문장 구조를 ‘미로’(迷路)라고 부른다.

“NIV는 참 읽기 쉽다.”는 광고 역시 마귀의 계략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자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NIV의 복잡한 문장 구조 속에서는 어떤 단어를 외우거나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된다. 다음의 표는 KJV와 NIV의 음절 수를 비교해서 보여 준다.

NIV의 경우 무려 음절 수가 KJV의 3배나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본 부록에서는 지면이 부족하여 성경 전체를 비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NIV의 어휘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KJV와 NIV의 음절 수 비교〉

	NIV	KJV
출32:6; 고전10:7	indulge in revery (6)	rose up to play (4)
레14:2, 57	regulations for infectious skin diseases and mildew(15)	law of leprosy (5)
레11:30	skink (1)	snail (1)
고후2:2	conscripted (3)	told (1)
롬1:28	think it worthwhile (4)	like (1)
엡4:16	supporting ligament (6)	joint (1)
눅10:35	reimburse (3)	repay (2)
눅11:26	final condition (5)	last state (2)
총 음절수	43	17

〈3.6〉 KJV 영어의 특징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 세계적 책으로 만드셨는데 사실 이 같은 계획은 2000년대에 새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대영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함에 따라 지난 400년간 KJV의 단어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 나갔다.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호주,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에 영국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영국의 권력 및 문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영문학을 배우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외국 학생의 영어는 미국식 영어가 아니고 영국 본토의 런던 토박이 영어이다.

사전 찾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친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KJV 안에 있는 8,000여 단어들로 구성된 영어야말로 새 역본들의 영어보다 훨씬 더 단순하며 정확하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3장 24절의 ‘가슴 옷’을 뜻하는 ‘stomacher’는 새 역본들이 번역한 대로 허리띠를 뜻하는 ‘belt’가 아니며 15~17 세기경의 여자들이 가슴에 입었던 옷이다. 새 역본들에 있는 보다 ‘단순한’ 단어들은 사실상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거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새 역본들은 다니엘서 3장 7절에서도 KJV를 향상시키지 못할 뿐더러 같은 구절에서 KJV가 사용한 매우 간단한 단어인 하프(harp)를 훨씬 더 어려운 단어인 ‘지더’(zither)로 바꾸어 놓았다.

보기에 친숙한 것 같지 않은 KJV의 단어들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다.

1. 좋은 영어 사전을 사용하라. 어떤 단어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알려면 「Oxford Unabridged, The Glossary of the Cambridge Interleaved Bible」 혹은 1828년 판 「The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Noah Webster」 등을 사용하라.
2. 성경에 포함된 사전을 사용하라. 특히 한 단어가 한 번 혹은 여러 번 나타날 때 앞 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어를 처리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삼상9:1-11을 참고하라. 그분께서는 여전히 고어들을 그대로 두시되 성경에서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신다.

4. KJV에 있는 Thee나 Thou 등은 1611년의 영어가 아니고 성경 언어임을 기억하라. KJV가 번역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던 위의 단수 단어들은 이미 당신을 뜻하는 You로 대체되어 있었다. Thee, Thou, Thy, Ye를 You나 Your로 바꾸게 되면 단수 (thee, thou, thy)와 복수(ye) 사이의 중대한 영적 차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예를 들어 요3:7 등과 같은 구절).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You로 부를 수는 없기에 존칭의 의미를 갖는 Thou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4. 킹제임스 성경 신학의 우수성

한마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의 구원, 교회,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성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에 대한 절대 무오한 진리 - 이것을 정리하여 체계화하면 신학이 됨 - 를 담고 있는 책으로 오직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재는 척도가 바로 성경이다. 따라서 이 척도가 곧은가 곧지 않은가에 따라 믿는 바가 달라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단들의 경우처럼 잘못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KJV 성경의 신학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보여 주려 하며, 특히 본문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신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많은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려 한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KJV와 현대 역본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위해 영어 본문도 함께 기록했다.

#### <4.1> 하나님론

KJV(요일5:7)	NIV 등 현대 역본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 이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라.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 and these three are one.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성경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 주는 구절은 없다. 그런데 오직 KJV만 이 이 구절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KJV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4.2> 그리스도론

KJV(갈3:17)	NIV 등 현대 역본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the covenant, that was confirmed before of God in Christ, the law, which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does not set aside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KJV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도 계셨음을 보여 주며 또한 구약시대의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주나 NIV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다.	

KJV(요3:13)	NIV 등 현대 역본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And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KJV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이나 계신 분임을 보여 주나 NIV의 편집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밑줄 친 부분을 제거하고 있다.	

KJV(요일4:3)	NIV 등 현대 역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누가 이단인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인가? 그런데 NIV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눅2:33)	NIV 등 현대 역본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것들로 인하여 놀라워하더라.
<u>And Joseph and his mother</u> marvel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spoken of him,	<u>The child's father and mother</u>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죄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KJV(눅4:8)	NIV 등 현대 역본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u>Get thee behind me, Satan</u> :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사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수님의 권세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KJV(요1:18)	NASB 등 현대 역본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설명하셨느니라.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u>only begotten Son</u> ,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No man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u>only begotten God</u> ,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explained Him,
이것은 여호와와의 증인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NASB 등에 따르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열등한 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KJV는 예수님이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롬14:10-12)	NIV 등 현대 역본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u> 서리라...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 회계</u> 보고를 하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하나님의 심판석 앞에</u> 서게 되리라...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 회계</u> 보고를 하리라.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u>judgment seat of Christ</u>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u>to God</u> .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u>God's judgment seat</u>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u>to God</u> .
참으로 묘하지 않은가? KJV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명백하게 보여 주지만 NIV는 마음대로 성경을 고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4.3〉 교회론

KJV(계2:15)	NIV 등 현대 역본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So hast thou also them that hold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u>which thing I hate</u> .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회중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일반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계급주의 및 교권주의 사상이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4.4〉 성경론

KJV(삼하21:19)	NIV 등 현대 역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더니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u>엘하난</u> 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And there was again a battle in Gob with the Philistines, where <u>Elhanan</u>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u>the brother of Goliath</u> the Gittite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u>Elhanan</u>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u>Goliath</u> the Gittite
성경은 절대 무오한 책이다. 그런데 NIV 등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고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4.4〉 성경론 계속

KJV(막1:2-3)	NIV 등 현대 역본
<p>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p>	<p>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p>
<p>As it is written <u>in the prophets</u>,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thy face, which shall prepare thy way before thee.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p>	<p>It is written <u>in Isaiah the prophet</u>: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p>
<p>이 구절은 말3:1과 사40:3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는 구절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며 이를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p>	

KJV(막15:28)	NIV 등 현대 역본
<p>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p>	<p>삭 제</p>
<p>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p>	<p>삭 제</p>
<p>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NIV 등은 이런 예언의 성취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p>	

KJV(벧전2:2)	NIV 등 현대 역본
<p>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p>	<p>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할지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p>
<p>As newborn babes, desire <u>the sincere milk of the word</u>, that ye may grow thereby:</p>	<p>Like newborn babies, crave <u>pure spiritual milk</u>,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p>
<p>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젖이 무엇인가? KJV는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데 NIV는 이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또 구원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과정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p>	

<4.5> 구원론

KJV(요3:15)	NASB 등 현대 역본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That whosoever <u>believeth in him</u>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that <u>whoever believes</u>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NASB의 편집자들은 아무 것이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KJV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KJV(계21:24)	NIV 등 현대 역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곳으로 들어오리라.
And <u>the nations of them which are saved</u> shall walk in the light of it: and the kings of the earth do bring their glory and honour into it.	<u>The nations</u> will walk by its light,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splendor into it.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걷는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뿐이다. 그런데 NIV 등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걷는다고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구원받는 것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4.6> 속죄론

KJV(골1:14)	NIV 등 현대 역본
그분 안에서 우리가 <u>그분의 피를 통해</u>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u>through his blood</u> ,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KJV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을 보여 주나 NIV는 이런 사실을 숨긴다. 「현대인의 성경」, 「리빙바이블」 등의 현대 역본들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여 ‘피 없는 성경’이 되고 말았다.	

<4.6> 속죄론 계속

KJV(약5:16)	NIV 등 현대 역본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Confess <u>your faults</u>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erefore confess <u>your sins</u>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KJV는 성도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NIV는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고해 성사를 지지하고 있다.	

<4.7> 종말론

KJV(마25:13)	NIV 등 현대 역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함이니라.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wherein <u>the Son of man</u> cometh.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도대체 그 날과 그 시각을 수식해 주는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겠는가? NIV는 결코 쉽게 번역되지 않았다. 단지 사람들을 혼동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	

<4.8> 심판론

KJV(골3:6)	NIV 등 현대 역본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u>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u> :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오직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임한다.	

〈4.9〉 부활론

KJV(막12:23)	NIV 등 현대 역본
그런즉 그 일곱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 일곱 사람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u>when they shall rise</u> , whose wife shall she be of them? for the seven had her to wife.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NIV는 부활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한다.	

〈4.10〉 지옥론

KJV(막9:44, 46)	NIV 등 현대 역본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삭 제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삭 제
NIV의 편집자들은 무척이나 지옥을 두려워하므로 지옥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곳 외에도 신약약에서 지옥을 지칭하는 곳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음부, 스올 등으로 대체시켜 버렸다.	

〈4.11〉 천국론

KJV(히10:34)	NIV 등 현대 역본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리라.
For ye had <u>compassion of me</u> in my bonds, and took joyfully the spoiling of your goods, knowing in yourselves that ye have <u>in heaven</u> a better and an enduring substance.	<u>You sympathized with those in prison</u> and joyfully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becaus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NIV 편집자들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워 버리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구한 소유를 얻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것은 참으로 영구한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	



## 진리에 대한 오해와 역사의 진실

# 흠정역 성경 개정 신화

1611년에 탄생된 「흠정역 성경」의 권위를 심하게 흔들려는 비평가들의 최후 배수진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개정(改正)이라는 것으로 시비를 삼아 장난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 곧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사본학적 증거와 성령님께서 이루신 명백한 증거들을 들이대며 자기들의 빈약한 주장을 뒤엎어 버리자 궁극적인 패배를 맛보지 않으려고 그럴 듯해 보이는 이 요새로 도피한다. 일단 이 요새 안에 들어서면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 자신만만해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여러분은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십니까? 1611년 판입니까, 1629년 판입니까? 아니면 1769년 판입니까?”

이 같은 공격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잠시 어리둥절해하면 그들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재빨리 도망쳐 버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들의 성안에 들어가 성문을 걸어 닫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가 리건(David F. Reagan)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이미 조직적으로 파괴되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리건 박사는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라는 책을 저술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수정판에 얽힌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했다. 다시 말해 리건 박사는 「흠정역 성경」 비평가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시키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가 발견한 것을 보다 개선시키려 애써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므로 그의 허가를 얻어 그의 소책자 전편을 여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초기 개정 신화

마귀가 처음 이브에게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고후4:2)을 가르쳐 준 이래로 사람들은 줄곧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가인으로부터 발람에 이르기까지, 여후디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중세 암흑시대 신학자들로부터 오늘날의 인본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부패한 손이 노리는 제1의 표적물이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첨가, 삭제, 그리고 바뀌치기가 바로 그것이다. 아담 시대로부터 컴퓨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략은 변치 않고 동일하며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최근 들어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마귀의 공략 방법 중 하나는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곧 1611년 판 「흠정역 성경」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그 공격의 내용은 「흠정역 성경」이

이미 네 차례나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개정 성경들에 대한 반대론은 타당치 않으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꾸며 낸 이야기 즉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신화는 1881년에 나온 「영국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들의 최신 번역판 성경을 팔려는 근본주의 학자들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부활되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본 자료의 목적은 성경 보존을 부인하는 자들을 깨우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에 답변할 때 늘 문제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비평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대답해야만 하는가?”

만약 영어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천박한 질문들에 일일이 답하고자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느 곳에서고 공정성(公正性)이 득세하기 마련이며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다. 잠언 26장 4-5절은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그것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에 답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공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당신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미련한 존재로 만든다면 그런 질문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답이 될 것이다. 가령,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는 아무개가 이혼을 했으므로 성경은 무오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누가 해 온다면 이 경우에 여러분은 침묵이 최상의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실 여부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문제나 질문이 제기될 경우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성경 공격자는 자기의 기만 속에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우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매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나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둘째 종류의 문제라고 믿는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네 차례의 중대한 개정 작업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영어 본문에 기초해서 진전되고 있는 성경 개정 작업에 반대하는 것은 실로 그릇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독자께서는 본 부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흠정역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 1. 1611년 당시의 인쇄술

만일 하나님께서 주후 1611년에 「흠정역 성경」을 통해 영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면 (사실이 그렇다),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성경이 무오류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번역자들의 필기 자료일까? 혹은 인쇄공들에게 보낸 교정쇄일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이러한 종이 문치들은 이미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도 근거를 잃고 만다.

어떤 분은 인쇄기에서 맨 처음 찍혀 나온 책에 권위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책 또한 분명히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16세기 경의 인쇄소

당시의 인쇄 작업 방식에 따라 인쇄되었다라면 맨 처음에 인쇄된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 틀림이 없으므로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쇄할 때 만들어진 책들 중에서 남은 것들뿐이며, 사실 이렇게 남아 있는 책들은 다른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표준으로서 종종 지목되곤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 책들이 표준이 될까? 초판을 찍어 냈던 초기의 인쇄공들이 인쇄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던 말인가?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보존된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한 권위는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다. 인쇄공들의 실수로 틀린 데고 고친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망쳐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늘 틀리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성경 본문을 보존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1611년 당시 인쇄공들의 고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하기 161년 전인 1450년경에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는 했지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할 때 인쇄공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인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 비해 거의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인쇄는 여전히 느리고 어려웠다. 모든 활자를 한 번에 한 글자씩 손으로 조판하였으니 -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글자씩 조판했음 - 어떤 책에서도 인쇄공에 의한 실수들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1611년에 「흠정역 성경」 첫 판을 인쇄했던 인쇄공들은 참조할 수 있는 이전 판조차 없었기 때문에 「흠정역 성경」 초판에는 여러 가지 인쇄상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은 결코 현대 성경 역본 편집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본문 교체와 같은 것이 아니며 단지 단순한 인쇄상의 실수들로서 심지어 현대화된 인쇄기의 이점을 모두 살려 만든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에서조차 이따금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쇄상의 실수였던 것이다. 비록 이런 실수들이 성경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기 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정정(訂定)해야 했다.

현존하는 두 개의 「흠정역 성경」 인쇄 원본은 1611년 당시에 인쇄상의 실수 없이 성경을 인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 두 판본들은 옥스퍼드에서 인쇄되었고 둘 다 같은 해인 1611년에 인쇄되었다. 즉 같은 해에 두 번 출판되었던 것이다. 동일한 인쇄공들이 일을 했고 동일한 인쇄기로 인쇄를 했다. 그러나 이 두 판본을 엄밀히 비교해 보면 본문들 간에 대략 100여 개의 인쇄상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어 온 지난 400여 년 동안 소위 네 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그 결과 본문상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약 400여 군데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억측을 부린다. 분명히 학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무엇인가가 심히 부패되어 있다! 자, 이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상의 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보자.

## 2. 1611년 판 KJV가 네 차례 개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여기서 언급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명한 성경학자 스크리브너(F.H.A. Scrivener)가 「권위역 영어 성경(1611), 그 이후의 재판(再版)과 현대판들」(*The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1611), Its Subsequent Reprints and Modern Representativ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매우 학자 티를 내는 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884년에 이 책을 출판한 스크리브너가 1881년도 「영어개역성경」을 만든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그는 「흠정역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책은 「흠정역 성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흠정역 성경」의 개정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스크리브너 책의 첫 부분에 들어 있는 상세한 기록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소위 처음에 「흠정역 성경」을 두 번이나 대거 개정했다는 것은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27년 안에 일어났다. 독자께서 아셔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영어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케임브리지에서 인쇄된 1629년 판 「흠정역 성경」이 첫째 개정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개정'(revision)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했 고친 '교정'(correction)이었을 뿐이다. 1629년 판은 「킹제임스 성경」 원판이 번역된 지 18년 후에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맡았던 워드 박사(Dr. Samuel Ward)와 보이스 박사(Dr. John Bois) 두 사람이 그 판의 인쇄에 직접 참여했다. 원래 번역을 맡았던 이 두 사람보다 더 초기의 실수들을 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 다시 케임브리지에서 소위 '둘째 개정'이라 부르는 또 다른 판이 나왔다. 그 때까지 워드와 보이스 박사 모두 살아 있었지만 이때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1881년의 「영어개역성경」 편집에 직접 참여했던 스크리브너조차 케임브리지 인쇄공들이 한 것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었을 때 인쇄공들의 실수로 빠진 단어나 절을 원래대로 하고 명백한 인쇄상의 실수들을 교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이다.

뒤에 자세히 기술하게 되겠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약 400여 군데 교정된 것 중 72%가 원판이 인쇄된 지 27년 만인 1638년의 케임브리지 판에서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소위 '처음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화하기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위 '마지막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도 철자의 표준화에 필요한 두 단계로 구성된 또 다른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다. 이 두 단계 교정 공정의 판들 중 처음 것은 1762년에 시작되어 7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이 되었고 둘째 것은 1769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인본주의 학자들이 교정판에 번호를 매길 때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둘째 공정에서는 본문 교정이 거의 필요치 않았다. 소위 '수천 개의 변화'(changes)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확립된 정확한 본문에다 철자가 변함에 따른 형태 맞추기 작업에 불과했다. 즉 철자상의 변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철자상의 변화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는 것이 한낱 기만행위요, 머릿속에서 지어낸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많은 적든 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런 변화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3.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 인쇄 원본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을 박물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가정해 보자.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 유리 상자로 가서 유리를 통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들여다볼 것이다. 비록 책장을 넘겨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성경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안의 단어들을 거의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낱말들조차도 아주 이상하게 쓰여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전의 관람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611년 원판이 인쇄된 이래로 「킹제임스 성경」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매우 교활한 책략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차이들은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증거를 조사해 보도록 하자.

#### ● 인쇄상의 변화들(Printing Changes)

엄밀한 검토를 위해 변화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인쇄상의 변화들', '철자상의 변화들', '본문상의 변화들'.

먼저 '인쇄상의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활자체는 고딕 활자체였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의 활자체는 아마도 로마체나 타임즈 로마체일 것이다. 고딕체는 때때로 그것이 독일에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독일체라고도 부른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쇄기가 발명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고딕체는 중세기에 손으로 작성한 필사본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로마체는 꽤 일찍 발명되기는 했지만 유럽 전역에 걸쳐 가장 유력한 인쇄체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고딕체는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다. 1611년 당시 영국에서는 로마체가 이미 대중화되었고 곧 고딕체를 앞지를 전망이다. 그렇지만 원판 인쇄공들은 고딕체가 로마체보다 더 아름답고 표현 능력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딕체를 선택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체로 바꾸어야 했고 마침내 1612년에 로마체를 사용한 첫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다. 그로부터 몇 년 내에 인쇄된 성경들은 모두 로마체를 사용했다. 활자체의 변화는 글씨의 형태나 크기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성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고 딕 체	로 마 체
<p><i>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i></p>	<p>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p>

경의 본문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그렇지만 고딕체에 친숙하지 못한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형태상의 일반적인 몇몇 변화 외에도 몇 개의 특별한 글자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딕체 s는 대문자로 사용되거나 혹은 단어의 끝에 사용될 때 마치 로마체의 s처럼 보여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중간에서 소문자 s로 쓰일 때는 마치 f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also는 alfo가 되고, set는 fet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독일체 v와 u에서 발견된다. 고딕체 u가 로마체 v처럼 보이는 반면에 고딕체 v는 로마체 u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w를 ‘더블비’라 하지 않고 ‘더블유’라고 부르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익숙해지면 괜찮다. 따라서 1611년 판을 보면 love는 loue로, us는 vs로, 그리고 ever는 euer로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철자상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활자체의 변화일 뿐이다.

또 다른 예로, 고딕체 j는 i처럼 보인다. 그래서 Jesus(예수)는 Iefus(중간의 s가 f로 변했음에 유의하라)가 되고, joy는 ioy가 된다. 심지어 고딕체 d의 굵은 종선이 뒤에서 원으로 굴러지면 그리스어 델타(δ)와 비슷하게 된다. 이런 철자상의 변화들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 안고 있는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본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다. 이것들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두려고 사용하는 연막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 철자상의 변화들(Spelling Changes)

「흠정역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종류의 변화는 정서법(orthography) 또는 철자상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역사 학자들은 현대 영어가 15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611년경에는 현대 영어의 기본 단어들과 문법적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철자는 그 당시까지도 확립되지 않았다. 사실 1600년대의 철자는 매우 번덕스러웠다. 정확한 철자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잘 확립된 어떤 철자 규정 같은 것도 없었다. 어떤 작가들은 종종 같은 책에서, 때로는 같은 페이지에서조차도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1600년대가 철자 표기의 천국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단어들의 철자가 정해진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철자도 표준화되었던 것이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1611년의 인쇄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철자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철자의 차이점을 목록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가지 특징은 상당히 공통성을 띠고 있다. 부가적으로 들어간 e들은 종종 feare, darke 그리고 beare 같이 단어들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모음은 오늘날보다도 더 일반적이었다. 여러분은 me, be 그리고 moved 대신에 mee, bee 그리고 mooued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자음은 더욱 흔한 것이었다. ranne, euill 그리고 ftarres는 오늘날의 철자법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될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것들은 오늘날 철자법에 따르자면, ran, evil 그리고 stars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쇄상의 그리고 철자상의 변화들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어떤 식으로도 결코 본문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솔직히 현시대에 천주교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들에서 공공연하게 만들거나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본문 변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다.

### ● 본문상의 변화들(Textual Changes)

「킹제임스 성경」도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개정의 예로 제시하는 대부분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다. 이제부터 1611년 「흠정역 성경」의 본문과 현재 발견되고 있는 「흠정역 성경」 본문 사이에 실제로 본문 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물론 이 두 개의 본문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개정에 의한 변화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개 초기의 인쇄 실수들을 정정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사실임을 세 가지로 입증해 보일 수 있다: (1) 변화들의 특성, (2) 성경 전체를 통한 변화들의 빈도, (3) 이런 변화들이 생긴 때.

먼저 영어 「흠정역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던 때부터 생겨난 변화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1611년 판 본문으로부터의 변화들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은 이런 변화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인쇄상의 실수였다. 그것들은 절대로 성경 말씀의 해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본문의 변화가 아니다. 처음 인쇄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은 때때로 뒤집어졌다. 때때로 복수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단수가 복수로 쓰이기도 했다. 때로는 어떤 단어 대신에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가 대신 들어가 잘못 쓰이기도 했다. 드물게는 한 단어 혹은 심지어 한 절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략된 것들은 너무나 명백했으며 현대 번역판 성경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적 차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진실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과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정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스크리브너는 자신의 책의 부록에서 '1611년 KJV 판과 '후기 인쇄본들' 간의 변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나는 다음의 표에 이렇게 정정된 것들의 예를 실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들은 스크리브너의 저서의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첫째 정정 사항을 연속적으로 취한 것이다. 먼저 '1611년 원본'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본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음 정정된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은 지난 375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생긴 변화들 중 5%를 보았다. 보아서 금방 판단하겠지만 이것들은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alterations)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사실상 인쇄상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고, 그래서 현대판 성경들의 본문 변경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다음 표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면 심각한 교리적 차이를 지닌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스크리브너의 부록 전체를 살펴볼 때

그것이야말로 그가 교리의 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변경 사항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Seek God)이라고 해야 할 곳에서 ‘선(善)을 찾는’(Seek good)이라고 한 1611년 판 「흠정역 성경」의 시편 69편 32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표의 10번). 그러나 이것조차도 정말로 인쇄상의 실수였음을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로, good과 God의 철자가 유사하다는 점은 피곤한 식자공이 교정쇄를 잘못 읽어 본문에 틀린 단어를 찍을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둘째로 이 실수는 너무도 명백해서 원판이 인쇄된 지 6년 후인 그리고 소위 ‘첫째 개정’이라 불리는 것이 나오기도 전인 1617년에 이미 제대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1611년 「흠정역 성경」 본문에 여러 차례의 주요한 개정 작업이 있었다는 신화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남아 있다. 변화들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인쇄상의 실수들이었음을 보여 주며 또한 변화의 빈도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한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1611년 판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개정 사항이 마치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수천 개의 개정 사항과 동등한 것인 양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킹제임스 성경」본문의 ‘수천 개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활자체 또는 철자상의 변화였다. 그 밖의 것들은 분명히 지루했던 초기의 인쇄 공정에 따라 생긴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다.

〈1611년 판과 현재 출간되는 KJV 비교〉

번호	1611년 원본 본문	현재 본문	년도
1	this thing	this thing also	1638
2	shalt have remained	ye shall have remained	1762
3	Achzib, nor Helbath, nor Aphik	of Achzib, nor of Helbath, nor of Aphik	1762
4	requite good	requite me good	1629
5	this book of the Covenant	the book of this covenant	1629
6	chief rulers	chief ruler	1629
7	And Parbar	At Parbar	1638
8	For this cause	And for this cause	1638
9	For the King had appointed	for so the king had appointed	1629
10	Seek good	seek God	1617
11	The cormorant	But the cormorant	1629
12	returned	turned	1769
13	a fiery furnace	a burning fiery furnace	1638
14	The crowned	Thy crowned	1629
15	thy right doeth	thy right hand doeth	1613
16	the wayes side	the way side	1743
17	which was a Jew	which was a Jewess	1629
18	the city	the city of the Damascenes	1629
19	now and ever	both now and ever	1638
20	which was of our father's	which was our fathers	1616

위에 제시한 목록의 표본은 스크리브너가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변형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이렇게 꼼꼼한 학자가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킹제임스 성경」 간에는 단지 400여 개의 차이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또한 이런 차이점마저도 인쇄상의 실수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1611년에 인쇄된 두 개의 옥스퍼드 판 사이에도 인쇄상의 실수로 서로 100 여 개의 차이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성경이 대략 1,200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1611년 판과 현재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판과 비교하면 1장당 평균 변형은 0.33개로서 이는 3장당 1개꼴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것들은 ‘chief rulers’를 ‘chief ruler’로 ‘And Parbar’를 ‘At Parbar’로 고치는 것과 같은 변화들이었다.

이러한 변형들이 단순히 인쇄상의 실수들을 고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것들을 인쇄한 후 매우 빠른 시기에 모두 정정했다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상의 특성과 빈도는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 자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 400여 개의 정정 사항 중 대다수는 원판이 인쇄되고 난 후 몇 년 내에 이루어졌다. 그 예로 위의 수정 사항 목록을 다시 한 번 보기 바란다. 20개의 정정 사항 중 1 개는 1613년에, 또 1 개는 1616년에, 또 1617년에, 8 개는 1629년에, 5 개는 1638년에, 1 개는 1743년에, 2 개는 1762년에, 1 개는 1769년에 정정되었다. 따라서 20 개의 정정 사항 중 16 개 즉 80%가 1611년의 초판 인쇄 후 27년 내에 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개정 작업’이란 것은 결코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크리브너 책의 부록의 다른 페이지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킹제임스 성경」 본문 정정 사항의 72%가 1638년경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개정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는 명백히 인쇄상의 실수에 대한 것뿐이다. 본문 변화의 빈도는 세 페이지당 한 번꼴로 드문드문 일어났으며 본문의 인쇄상 실수들의 75%가 처음 인쇄된 지 27년 내에 정정되었다. 이런 모든 세부 사항은 지난 400년간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언어를 현대화시킨다는 의미의 진정한 개정 작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개정판이 있었다면, 초기 식자 공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 판본이 있을 뿐이다.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정확한 본문 - 단어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 에 대한 권위는 결코 현존하는 초판 원본에 있지 않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에 대한 권위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있다.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는 것에 대해 입씩름하며 서로 다투게 될까 봐 자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역본 성경의 교정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다. 우리의 권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결코 현대 역본 성경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근본주의 집단 내에 맴돌고 있는 그릇된 주장 즉 학자들이 부풀려 놓은 거짓 신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 신화는 다름이 아니라 「뉴킹제임스 역본」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역본들이 1611년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진 「킹제임스 성경」 개정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개정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은 곧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본문상의 개정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네 차례의 주요 개정 작업을 거쳐 본문을 바꾼 적이 없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말씀이 있다.





# 번역에 사용된 우리말 설명 한글성경 용어설명

성경을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 기존의 용어와 달리 표현한 곳이 더러 있고 또 어려운 단어나 화폐, 길이, 부피, 면적 등의 단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부록을 마련했다. 어려운 단어의 설명은 「한글 우리말 큰 사전」에서, 영어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에서, 성경 용어나 단위 해설은 「국제표준성경백과사전」(*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ISBE)과 「영거의 성경사전」(*Unger's Bible Dictionary*, UBD) 등에서 발췌했다.

## (ㄱ)

가증(可憎) : 알미움.  
가리지 : 영어는 tare이며 발에 나는 강아지풀이나 독보리를 뜻함.  
가미우지 : 영어는 cormorant이며 새 종류임.  
가시채찍 : 영어는 prick이며 소 등을 모는 데 쓰는 가시 달린 막대기를 뜻함.  
간계(奸計) : 간사한 꾀.  
간수(看守) : 영어는 keeper of the prison이며 감옥지기임.  
감힌 자 : 영어는 prisoner이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뜻함.  
갑 : 부피 단위로 영어는 cab이며 약 1.2 리터임(1.16 쿼트, 4 로그).  
강권(強勸) : 영어는 constrain이며 강력히 권면하다는 뜻임.  
강력(強力) : 영어는 might이며 힘세거나 힘차다는 뜻으로서 명사로 쓰일 때는 천사들의 한 등급을 뜻함(엡 1:21).  
강탈(強奪) : 영어는 robbery이며 강제로 빼앗음을 뜻함.  
강퍽하다 : 영어는 harden이며 마음을 딱딱하게 하거나 완고하여 사납게 함을 뜻함.  
개가(凱歌) :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부르는 노래.  
개종자(改宗者) : 영어는 proselyte이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뜻함.

개혁(改革)의 때 : 히9:10절에 있는 구절로 영어는 the time of reformation이며 9절에 있는 현재 끝 이 때와 대비가 되는 때를 뜻함. 참고로 여기 나오는 reformation이라는 단어는 중세암흑시대를 벗어나게 해준 종교개혁(Reformation)과 같은 단어임.  
거인(巨人) : 영어는 giant이며 거인들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으며 노아의 대홍수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가나안 땅에도 있었음(민 13:33, 신2:11; 2:20; 3:11; 3:13; 수12:4; 13:12; 15:8; 17:15; 18:16 등 참조).  
거제 헌물 : 영어는 heave offering이며 들어서 올리는 헌물임.  
게라 : 중량 단위로 0.02 온스(0.57 그램) 정도임.  
겨리 : 영어로는 a yoke of oxen이며 소 두 마리를 뜻함.  
격동(激動) : 급격하게 움직임. 몹시 감동하거나 충동함.  
견과(堅果) : 영어는 nur이며 호두, 밤 등과 같이 껍질이 딱딱한 열매.  
결말(結末) : 끝장.  
경(更) : 영어는 watch이며 하룻밤을 넷이나 다섯으로 나눈 각각의 하나를 가리킴.  
경건(敬虔) : 영어는 godliness이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을 뜻함.  
경건치 아니한 : 영어는 ungodly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것을 뜻함(시편 1편).  
경륜(經綸) : 영어는 dispensation이며 이 단어는 경

영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법으로 인류 역사를 경영하는 체계나 방법 등을 뜻함. 여기에는 반드시 그런 경영 체계가 유지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청지기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적 의미가 강할 때는 경영 체계의 기간을 의미하여 신학적으로 세대(世代)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세대란 말은 영어권에서 유대인 세대(Jewish dispensation), 크리스천 세대(Christian dispensation), 복음 세대(gospel dispensation)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는 말이며 성경에서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처럼 구원받는 방법은 같으나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기간을 가리킴(OED). 한편 고전 9:17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개념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나타내므로 분배 사역으로 번역했음.  
 경배(敬拜): 영어는 worship이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애하는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  
 계보(系譜): 영어는 genealogy이며 한 집안의 계통 혹은 혈통을 나타냄.  
 계시(啓示): 영어는 revelation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뜻함. 보통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으로 사람의 양심이나 해, 달, 별 등과 같은 자연 만물을 그 예로 들 수 있고(시19:1-6, 롬1:18-32) 사람이 이런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라는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계시는 결코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음. 특별 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적, 우림과 둠뎀, 천사, 예수 그리스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  
 계피(桂皮): 영어는 cassia이며 계수나무의 얇은 껍질을 뜻함.  
 고드란트: 영어는 farthing이고 영국에서 사용된 최소액의 청동화로서 사본의 일 페니에 해당됨(마5:26, 10:29, 눅12:6 참조).  
 고르: 부피 단위로 영어는 measure이며 호멜과 같아서 약 220 리터임(6.52 부셀, 10 에마, 10 바스).  
 고문관(顧問官): 영어는 counsellor이며 치리자에게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을 뜻함.  
 고벨화: 영어는 camphire이며 향내를 내는 꽃으로 헤니(henna)라고도 함.  
 고수풀: 영어는 coriander이며 향기가 있어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약재로 사용되는 한해살이 식물로서 그 씨는 회색 빛깔을 띰.  
 고전16:22: 영어는 Anathema Maranatha인데 아나테마는 저주받은 자 혹은 저주받은 물건을 가리키며 마라나타는 '주께서 오셨느니라'(OED), '주께서 오시리라', '주여 오시옵소서'의 의미를 가짐(ISBE).  
 고자(鼓子): 영어는 eunuch이며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대개 내시로 번역되었으며 마19:12에서는 의미상

결혼하지 못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킴. 고자라는 단어는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란 뜻으로 마 19:12의 의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나 다른 대안이 없어 사용했고 특히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고자로 만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임.  
 고펠나무: 영어는 gopher이며 이 단어는 어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송진 등을 포함하는 나무로 추측됨(ISBE).  
 곤궁(困窮): 곤란하고 궁핍.  
 골수(骨髓): 뺨골.  
 골풀: 영어는 rush이며 골풀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키는 1m 쯤 되며 땅속줄기는 옆으로 뻗고 줄기는 긴 송곳처럼 밋밋한 것이 여러 개 나는데 잎은 비늘 모양으로 줄기 아랫도리에 붙어 있음.  
 공세(貢稅): 영어는 tribute이며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그 필요한 경비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수입. 같은 단어가 구약에서는 조공(朝貢)으로도 번역되고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돈을 의미함.  
 공언(公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하여 말함.  
 공의(公義): 영어 judgement를 번역한 것으로 공평한 도리를 뜻함.  
 공포(公布): 일반에게 널리 알림.  
 공회(公會): 영어는 council이며 공적인 일로 모이는 집회를 뜻함.  
 과도(過度): 영어 excess를 번역한 것으로 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함을 뜻함.  
 관능(官能): 감각 기관의 기능. 육체적 쾌감을 일으키는 작용.  
 관례(慣例): 영어 manner를 번역한 것으로 늘 해 오는 전례를 뜻함.  
 관저(官邸): 고관들이 살도록 나라에서 지은 집.  
 광야(曠野): 영어 wilderness를 번역한 것으로 황무지를 뜻함.  
 광체(光體): 영어는 light이며 빛을 내는 물체를 뜻함.  
 교통(交通): 영어는 communion이며 서로 소식 등을 주고받는 교제를 뜻하며 고후13:14에 단 한 번 성령님의 교제의 의미로 쓰임.  
 교회(教會): 교회란 말은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것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란 뜻이며 예수님께서 마16:18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I will build my church)고 하심으로써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미례형 구절이 보여 주듯이 예수님의 교회는 구약시대에 없었으며, 스테반이 행7:38에서 언급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도 분명히 부름 받은 자들이므로 교회이나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OED도 정확하게 이것이 이스라엘 회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행19:37에는 심지어 이교도들의 모임도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로 불림. 예수님의 내 교회 즉 신약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

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모임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수태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태어나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틀을 갖추게 됨.

구속(救贖): 영어는 redeem 혹은 redemption이며 대신 속죄하여 죄악에서 사람을 건져냄을 뜻함.

구원(救援): 영어는 save 혹은 salvation이며 이것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의미로도 쓰이고 일반 재난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로도 쓰임(마8:25; 14:30 등 참조).

규유: 영어는 manger이며 마소나 돼지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구제(救濟): 영어는 alms이며 어려운 형편이나 불행한 처지에서 건져 줌을 뜻함.

군단(軍團): 영어는 legion이며 큰 부대 단위를 뜻함.

군림(君臨): 영어는 reign이며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림을 뜻함.

궁창(穹蒼): 영어는 firmament이며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는 무엇을 지지해 주는 굳은 기초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활갈이 흰 하늘을 가리킴(OED).

궁핍(窮乏):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권능(權能): 영어는 power이며 권세와 능력 혹은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천상의 존재들 중 한 등급을 나타내는 때도 있음(엡1:21).

규례(規例): 영어는 ordinance이며 규칙으로 정한 법을 뜻함. 신약 교회의 규례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음.

그룹: 천상의 피조물 중 하나로 날개를 가졌으며 단수는 그룹(cherub)이고 복수는 그루뵘스(cherubims)이며 이들은 천사나 스랍과는 다른 존재임.

근(斤): 영어는 pound이며 원어는 리트라로 약 340그램 정도임.

근채: 영어는 cummin이며 미나리과 식물임.

금식(禁食): 영어는 fast 혹은 fasting이며 원래는 음식을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뜻함.

금휼(矜恤): 영어는 mercy이며 불쌍히 여김을 뜻함.

금휼의 자리: 영어는 mercy seat이며 기존 성경의 속죄소 혹은 시온좌이고 구약시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위에 둔 금으로 만든 자리로 하나님께서 금휼을 베푸시는 곳을 의미함(출25:17-22).

기구(器具): 영어는 vessel이며 세간, 그릇, 연장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기근(饑饉): 영어는 famine이고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 혹은 흉년 등을 뜻함.

기이(奇異): 기묘하고 이상함.

기진(氣盡): 영어는 faint이고 기력이 풀려서 힘이 다함을 뜻함.

길쌈: 옷감을 짜내기까지 수고하는 모든 일.

길: 영어는 fathom이고 약 1.8m임(행27:28).

깊음: 눅8:31에 나오는 이 말은 영어로 'the deep'이고 그리스어로는 '아부쑌스로 이는 계9:1-4에 나오는 바

닥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과 같은 뜻임.

껍질: 마3:12에 나오는 이 말은 영어로 chaff이며 이것은 알곡을 털어 내고 남은 껍질 즉 겨를 의미함.

## (L)

나감함: 영어는 onycha이며 달팽이 같은 연체 복족류의 튀어나온 숨통 뚜껑 등을 태워 만든 향 재료(ISBE). 나드 향유: 영어는 spikenard이며 감송향 뿌리에서 만든 귀한 향료(야4:13-14, 막14:3, 요12:3).

나병(癩病): 영어는 leprosy이며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질병으로 기존 성경의 문둥병임.

나사르 사람: 영어는 Nazarite이며 기존 성경의 나실인이고 예수님의 도시 나사렛과 나사르 사람이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마2:23).

날: 영어는 day이며 별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단어는 지금과 똑같은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며 특히 창세기 창조 기사에 나오는 하루는 지금의 24시간의 하루와 동일함(출20:8-11).

남색(男色)하는 자: 영어는 sodomite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래된 말로 동성 연애하는 남자를 가리킴(레18:22, 20:13 참조).

남용(濫用): 영어는 abuse이며 정해진 것 이상으로 넘치게 씀을 뜻함.

노략(擄掠): 영어는 spoil이며 큰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재물을 빼앗아 감을 뜻함.

노획(虜獲): 전쟁 중에 적의 물품을 빼앗음.

누룩: 영어는 leaven이며 빵을 만들 때 쓰는 효소 즉 이스트를 뜻함.

눈앞: 영어 sight는 in the sight of라는 관용구로 쓰이면서 '누가 보는 데서'를 뜻하고 본 성경에서는 '눈앞에서'로 동일함.

니골라당: 영어는 Nicolaitans인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계2:14-15),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대개 초대 교회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니콜라(행6:5)가 만든 파당으로 은혜를 너무 강조하여 방종에 이른 자들로 보며 또한 후에 영지주의자들이 된 것으로 봄(NBE). 또 하나의 다른 설은 이 단어가 '누르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니코'와 '일반 성도'라는 의미의 '라이'의 합성어로 '교회에서 일반 성도를 누르는 자들'을 뜻한다고 보며 이 경우에는 유대교의 성직자체계 같은 것이 또 다시 초대 교회에 들어와 성도를 성직자와 일반 성도로 계급화 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능욕(凌辱): 업신여기어 욕보임.

## (C)

다릭: 화폐 단위로 영어는 dram이며 그리스어 드라크마와 같은 기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가치는

대개 십분의 삼 세겔 이하임.

다산(多産): 영어는 fruitful이며 자식이나 새끼를 많이 낳음을 뜻함.

다림줄: 영어는 plumb line이며 수직인지 살펴보려고 추를 달아 늘어 놓은 줄을 뜻함.

단언(斷言): 영어는 protest이며 딱 잘라 말하는 것을 뜻함.

단일(單一): 영어는 single이며 단 하나를 뜻하되 주로 눈과 마음의 상태와 관련하여 일편단심의 뜻을 나타냄. 단장(丹粧): 얼굴, 머리, 몸, 옷차림 따위를 잘 매만져 곱게 꾸밈.

달란트: 영어는 talent이며 금, 은, 쇠 등 금속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약 45 킬로그램 정도이고(UBD) 돈으로 따질 때 금 일 달란트는 미화 30,000달러 정도임(ISBE).

담대(膽大):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함.

담무스: 영어는 Tammuz이고 바빌론의 태양신으로 하늘의 여왕 아스타르테와 함께 숭배를 받았고 이집트에서는 이 둘이 오시리스와 이시스로 숭배를 받음(ISBE, 렘7:18).

당아욱: 영어는 mallows이며 아욱과에 딸린 두해살이 풀.

대기(大氣):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체.

대륙의 이동: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대륙의 이동이 생겨 지금의 지구처럼 됨(창10:25).

대사(大使): 영어는 ambassador이며 나라를 대표하여 딴 나라에 가서 외교하는 사람.

대속(代贖): 영어는 redeem 혹은 redemption이며 남의 죄를 대신 당해 그 죄를 없애는 것을 뜻하고 이를 위해 지불하는 것을 대속물(ransom)이라 함.

대언자(代言者): 영어는 prophes이며 하나님의 영감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뜻하고(OED) 대언자의 말은 대언이라 하며 대언에는 앞날을 미리 말하는 예언, 책망, 명령 등 하나님께서 대신 전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가 포함됨. AD 100년경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대언자가 없음(고전13:9-10).

대적(對敵): 적을 마주 대함 혹은 맞서 겨루고 있는 원수.

데나리온: 영어는 penny 혹은 pence이며 백분의 일 파운드에 해당되는 청동 화폐임.

델리움: 영어는 Bdelium이며 식물에서 나는 수지가 굳어 이루어진 보석(OED, 민11:7 참조).

덮는 것: 영어는 covering이며 고전11:15은 여자가 긴 머리를 하던 집회에서 굳이 너울이나 모자를 쓸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줌.

독생자(獨生子): 영어는 the only begotten Son인데 이는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성도들도 요 1:12와 롬8:14-15 말씀에 따라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

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즉 독생자이심.

독실(篤實): 영어는 devout이고 신앙심이 깊고 열성이 있음을 뜻함.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고 여닫게 하려고 암쪽은 문설주에, 수쪽은 문짝에 박아 맞춰 꽂게 된 쇠붙이로 만든 두 개의 물건.

두멍: 영어는 laver이며 물을 많이 담아 두고 쓰는 큰 통.

드라크마: 영어 silver piece를 번역한 것으로 은화의 명칭.

들보: 영어는 beam이며 집의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큰 나무.

디르사다: 영어는 Tirshatha이며 에스라, 느헤미야기에 총 5번 나오는데 총독이나 지사를 의미함.

(ㄱ)

랍비: 영어는 Rabbi이고 선생님을 뜻함.

리위야단: 영어는 Leviathan이며 여러 머리 달린 구부러진 뱀(시74:14, 시104:26, 사27:1).

렘드: 영어는 mite이며 동이나 구리로 만든 작은 동전.

로그: 영어는 log이며 액체의 부피 단위로 약 0.3-0.4 리터임.

로뎀나무: 영어는 juniper tree로 곱향나무이며 로뎀은 원어를 음역한 것임.

루시퍼: 영어는 Lucifer이며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로 사탄 마귀를 가리킴(사14:12).

리(里): 마5:41의 경우 영어는 일 마일, 이 마일로 되어 있으며 마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밀리온인데 이 구절에서는 우리말인 리로 번역했음.

(ㄴ)

마귀: 우리말 큰 사전은 귀신을 가리켜 사람이 죽은 뒤의 넋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이교도 사상으로 성경 안에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에 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눅16:25-31) 이 땅에서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음. 「킹제임스 성경」은 정관사 'the'가 붙은 마귀와 부정관사 'a'가 붙은 마귀와 복수로 쓰인 마귀들이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 많은 신(gods)이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God)이 있으며 많은 아들(sons)이 있고 유일하신 아들(the Son)이 있으며 많은 마귀(devils)가 있고 유일한 마귀(the devil)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 본 성경에서는 정관사가 붙은 마귀를 일반 마귀들과 구분하기 위해 진하게 처리했음.

마자롯: 영어는 Mazzaroth이며 12 궁도의 별자리(UBD).

막론(莫論) : 이것저것 가리고 따져 말하지 않음.  
 만기(滿期) : 영어는 expire이며 정해 놓은 기한이 다 참을 뜻함.  
 만찬(晚餐) : 영어는 supper이며 동사형은 sup이고 손님을 청하여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뜻함.  
 맏아들 : 영어는 firstborn son으로 마1:25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성경과 달리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았다고 정확하게 기록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뒤에 평생 동정녀(the Virgin)로 지낸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a virgin)로 자기의 맏아들 예수님을 낳은 뒤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러 명의 아들 딸을 두었음(마13:55-56 등 참조).  
 말소(抹消) : 영어는 blot out이며 지워 없앴을 뜻함.  
 맘몬 : 영어는 mammon이며 재물을 뜻하고 인격화된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됨.  
 멸절(滅絶) : 멸망하여 아주 없어지거나 멸망시키어 아주 없앴.  
 명령(命令) : 영어는 commandment이며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시킴을 뜻함. 기존에는 이를 종교나 도덕상 마땅히 지켜야 할 조건을 뜻하는 계명으로 번역했으나 계명은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된 명령의 의미와 부합되지 않음.  
 명철(明哲) : 영어는 understanding이며 이해력이 커서 잘 깨닫고 사리에 아주 밝은 것을 뜻함. 특히 잠언에 서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구절로 많이 나옴.  
 명패(名牌) : 이름패.  
 모독(冒瀆) : 더럽혀 욕되게 함.  
 목사(牧師) : 영어는 pastor이며 구약에서는 목양자로 신약에서는 교회의 목양자/교사를 뜻하는 목사로 번역했고 이 단어는 양을 인도하고 양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를 뜻함.  
 몰약(沒藥) : 올리브과에 딸린 쭈나무로 잎은 겹잎이고 꽃은 내일 꽃이며 열매는 핵과이다. 아라비아, 아프리카 등지에 자라며 몰약의 줄기 속에서 새어나오는 즙을 말린 반투명 덩어리는 특이한 향기와 맛이 있어 통경제나 건위제 등으로 쓰임.  
 무교절 : 영어는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이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1주일간 지키는데 이때에는 누룩을 모두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음(출12:17-20).  
 무두장이 : 영어는 tanner이며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킴.  
 무명(無名) : 이름이 나지 않음.  
 무의식 상태 : 영어는 trance이며 어느 정도 의식이 없이 황홀한 상태를 뜻함.  
 무익(無益) : 이름거나 도움이 될 만 한 것이 없음.  
 무참함 : 몹시 끔찍함.  
 므나 : 영어는 pound이며 금은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약 0.57 킬로그램임.

미혹(迷惑) : 정신을 흐려 흐리지게 함.  
 민란(民亂) : 포악한 정치 따위에 반대하여 백성들이 떠들고 일어난 소요.  
 민망(憫惘) : 딱하고 안타까움. 혹은 딱하고 부끄러움.

## (B)

바닥없는 구덩이 : 영어는 bottomless pit으로 기존의 무저갱(無底坑)임(눅8:31; 롬10:7; 계9:11; 11:7; 17:8; 20:1, 3 등 참조, ISBE).  
 바바리인 : 영어는 Barbarians이며 원래 이 단어는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 말로 롬1:14의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라는 표현은 결국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임(UBD, ISBE).  
 바스 : 부피 단위로 6 힌이며 약 6 갤런을 뜻함.  
 반석(磐石) : 영어는 rock이며 굳은 바위를 뜻함.  
 방도(方道) : 일을 하여 갈 방법과 도리.  
 방종(放縱) : 거리낌 없이 제 멋대로 함부로 행동함.  
 번성(蕃盛) : 영어는 multiply이며 많이 생겨 퍼짐을 뜻함.  
 번제 헌물 : 영어는 burnt offering이며 태우는 헌물임.  
 번홍화 : 영어는 saffron이며 분꽃과에 속한 빨간색 다년초.  
 범람(汎濫) : 큰물이 넘쳐흐름.  
 범법(犯法) : 영어는 trespass이며 법을 어기어 범함을 뜻함.  
 범죄(犯罪) : 영어는 transgress이며 죄를 저지름을 뜻함.  
 베일 : 영어는 veil이고 원래는 작은 천 조각을 의미하며(OED) 성경에서는 무엇인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물건을 가리키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를 사용했으며(출34:33-35; 고후3:13-16; 창38:14; 룻3:15) 성막에 서는 이를 휘장으로 번역함(출26:31; 레4:6; 민4:5 등).  
 별세(別世) : 영어는 decease이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가리키고 눅9:31에 1회 사용됨.  
 병(瓶) : 영어는 vial이며 계시록에서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주둥이가 긴 그릇을 가리킴.  
 병약(病弱) : 영어는 infirmity이며 병들어 약한 것을 뜻함.  
 보고(寶庫) : 영어는 treasury이며 귀중한 물건을 간수하여 두는 곳을 뜻함. 특히 성전의 보고는 유대인들의 봉헌물이나 십일조 등을 받는 곳으로 단순한 현금함이 아님.  
 보루(堡壘) :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진지.  
 보복(報復) : 앙갚음.  
 보상(報償) : 영어는 reward이며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것을 갚음을 뜻함.  
 보여 주는 빵 : 영어는 shewbread이며 기존의 진설병.  
 보응(報應) : 영어는 reward나 recompense이며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선악이 대갚음됨

을 뜻함.

본향(本郷) : 사람의 본 고향.

봉인(封印) : 영어는 seal이며 봉하여 붙인 자리에 찍은 도장을 뜻하며 결국 보증하는 표라는 뜻임.

부양(扶養) :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

부요(富饒) : 영어는 rich이며 재물이 많고 넉넉함을 뜻함.

분개(憤慨) : 몹시 분하게 여김.

분부(吩咐) :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

분쟁(分爭) : 패로 갈라져 다툼.

분파(分派) : 나뉜 갈래. 여러 갈래로 나뉨.

분향(焚香) : 향을 피움.

불 호수 : 영어는 lake of fire로서 불이 가득한 호수이며 최종 지옥임.

불 침례 : 성경적으로 불 때 불 침례는 지옥 불에 잠기는 것으로 성도들이 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성경 침례 참조 바람.

블레셋 : 영어는 Philistines이며 이들은 함의 후예들로 지중해에서 올라와 팔레스타인 남서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가리킴(창10:14; 렘47:4; 암9:7).

비방(誹謗) : 비웃고 헐어서 말함.

비천(卑賤) : 영어는 base이고 지체가 낮고 천함을 뜻함.

(人)

사람 : 영어는 man이며 man의 일차적 의미는 남자임. 사람의 분류 : 신약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의 세 부류만 존재함(고전10:32, 갈6:16 참조).

사람의 수 : 계13:14에 나오는 말로 영어는 the number of a man인데 이 수는 하나님의 수와 대비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어떤 인물 즉 적그리스도의 수임.

사람의 아들 : 영어는 the Son of man으로 기존 성경의 인자(人子)임. 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대비되는 용어이며 이런 대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으며 용어 자체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신약성경에 총 87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네 경우를 빼고는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가리킬 때 사용함.

사람의 창조 : 성경의 연대에 따르면 사람의 창조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 즉 BC 4,000년경에 이루어짐.

사람 : 영어 charity는 진하게 표시했음.

사미리아 사람 : 영어는 Samaritans이며 구약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시리아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섞게 함으로써 생겨난 혼혈 민족임(왕하17:24-39).

사면(赦免) : 영어는 remission이며 죄를 용서해 줌을 뜻함.

사분 영주 : 영어는 tetrarch이며 로마 시대에 어떤

지역의 사분의 일을 다스리던 치리자.

사사(士師) : 영어는 judge이며 옛날 중국에서 형벌과 법령을 맡아보던 재판관을 뜻하는데 본 성경에서는 이를 다 재판관으로 번역했고 다만 책 이름은 사사기로 두었음.

사역(使役) : 영어는 minister이며 이는 부리어 일을 시킴을 뜻하고 사역자는 일을 시키는 사람임.

사자(使者) : 영어는 messenger이며 전갈을 전하는 사람, 심부름꾼을 뜻함.

삭도(削刀) : 영어는 razor이며 머털이나 수염을 깎는 칼을 뜻함.

산고(產苦) : 영어는 travail이며 아이를 낳는 괴로움을 뜻하고 같은 단어가 해산의 고통으로 번역된 곳도 있음.

산당(山堂) : 영어는 high place이며 구약 시대에 언덕이나 산 등의 높은 곳에 지어 하나님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던 장소를 가리킴.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산당 즉 높은 처소에서 주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왕상3:2-4),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여전히 산당에서 이방 신들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부름.

살아 있는 혼 : 영어는 living soul이며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혼임(창2:7).

살육(殺戮) : 영어는 slaughter이며 무엇을 빙자하여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임을 뜻함.

삼위일체(三位一體) : 영어는 trinity로 이 말 자체는 성경에 없으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인격체로 구성된 한 하나님을 보여 주는데 특히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성경과 달리 요일5:7에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고 기록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함. 한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삼위일체로서 창2:7에는 사람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영과 육과 혼, 즉 생명의 호흡, 흠, 사람 자체가 처음으로 언급됨(살전5:23; 고전15:45).

상속(相續) : 영어는 inherit이며 대를 물리어 잇는 일을 뜻함.

상종(相從) : 서로 친하게 지냄.

새 상속 언약 : 영어는 new testament이고 보통 신약(新約)이라 부름.

색욕(色慾) : 영어 lasciviousness를 번역한 것으로 합당치 못한 성욕을 가리킴.

성구함 : 영어 phylactery를 번역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신6:8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팔이나 이마에 성경 구절을 묶어 두려고 만든 네모난 가죽 함을 뜻함.

선고(宣告) : 널리 알림. 재판의 판결을 일반에게 발표함.

선포(宣布) : 영어는 preach이며 널리 알림을 뜻하고 주로 복음이나 말씀과 관련하여 쓰임.

성도(聖徒) : 영어는 saints이며 보통 이 단어는 성인이라 번역되지만 성경에서는 성도로 번역했으며 이

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데 특히 신약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를 가리킴(롬 1:7, 고전1:2 등 참조, ISBE, UBD).

성령님 : 영어는 the Holy Ghost이며 「킹제임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표현할 때 외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강조할 때는 the Holy Ghost로, 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강조할 때는 the Spirit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the Holy Ghost는 성령님으로 the Spirit은 성령으로 구분하여 표기했음.

성령 침례 :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마3:11-12에 있듯이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고 불 침례를 받은 사람은 켄데기로 지옥 불에 들어 감. 사도행전 2장 3절을 인용하여 성도들에게 불 침례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임하였지 불이 임한 것이 아님.

성령 훼방 죄 : 성령 훼방 죄는 막3:28-29에 있듯이 예수님이 부정한 영에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며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성령 말씀으로 올바른 것을 보여 주는 것은 결코 성령 훼방 죄가 아님.

성막(聖幕) : 영어는 tabernacle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때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든 장막.

성정(性情) : 영어는 passion이며 사람의 마음을 이루는 성질과 마음씨를 가리킴.

세겔 : 보통은 0.4 온스(11.4 그램)이며 왕실의 세겔은 0.8 온스이고 1 세겔은 20 게라임.

세대(世代) : 영어는 generation이며 이는 낳은 것 혹은 출산한 것(OED)을 의미함(창5:1; 6:9; 사53:4; 마1:1; 뱀전2:9 등)

세아 : 영어는 measure이며 세아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으나 약 삼분의 일 에바(7.3리터) 정도로 추산됨.

세입(稅入) : 영어는 revenue이며 조세 수입을 뜻함.

소멸(消滅) : 사라져 없어짐.

소생(蘇生) :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남.

소출(所出) : 영어는 increase이며 논밭에서 나는 곡식 따위를 가리킴.

소합향 : 영어로는 stacte이며 소합향 나무의 송진으로 만든 향.

속량 : 영어는 redeem이며 종이나 매인 사람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함을 뜻하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대속되는 것을 뜻함.

속박(束縛) : 영어는 bind이며 자유가 없게 얽매를 뜻함.

속죄(贖罪) :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값을 치른 일.

쇠하다 : 차차 줄어들어 약해지다.

수간(獸姦) : 짐승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것.

수만(數萬) 성도 : 영어는 ten thousands of saints로 신33:2와 유14에 나오는 표현으로 이처럼 thousand가

복수로 되어 있을 때는 '수많은'을 의미함.

수의(壽衣) : 사람이 죽어 염습할 때에 송장에게 입히는 옷.

수장절(收藏節) : 영어는 the feast of ingathering이며 곡식을 모아 저장하는 절기를 뜻함(출23:16; 34:22).

수제사장(首祭司長) : 영어는 chief priest임. 대제사장(high priest)이나 수제사장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동일하지만 KJV은 이를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해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 뿐이기 때문임. 대제사장은 위치를 나타내고 수제사장은 기능을 나타내며 대제사장은 수제사장이지만 수제사장은 다 대제사장이 아님. 마26:3, 막14:53, 행5:24 등은 한 명의 대제사장과 여러 명의 수제사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왕하25:18, 대하19:11, 행25:2는 수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부를 수도 있음을 보여 줌.

수종(水腫) : 영어는 dropsy이며 몸 안의 장액 또는 림프액 따위가 조직 사이에 고여서 붓는 병.

수천의 : 출20:6에 있듯이 영어는 thousands of them이며 이는 수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식 표현임. 참고로 출20:6의 그 구절을 수천 세대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며 신학적으로도 틀리고 원어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음.

수태(受胎) : 영어는 conceive이며 아이를 뱃을 뜻함. 욕십의 경우는 잉태로 표현했음(약1:15).

수확절(收穫節) : 영어는 the feast of harvest이며 수확하는 절기를 뜻함(출23:16).

순응(順應) : 영어는 conform이며 외부에 적응하여 변화함을 뜻함.

순전(純全) : 순수하고 완전함.

순회(巡廻) : 여러 곳으로 돌아다님.

술 : 영어는 fringe이며 옷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스랍 : 영어는 seraphims인데 스랍은 불같이 빛난다는 뜻으로 천상에 속한 존재들 가운데 하나이며 이사야서에만 나옴.

스스로 있는 자 : 이는 출3:14의 I AM THAT I AM을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I AM 되심을 보여 주는 놀라운 구절임.

스키티아인 : 영어는 Scythian이며 흑해 북부 지역에 살던 유목민(UBD)을 가리킴.

스타디온 : 영어는 furlong이며 1 스타디온은 약 182미터(606 피트)임.

스토아 학파 사람들 : 영어는 Stoicks이며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 제노를 따르던 사람들로 금욕주의를 추구함.

시뫼나무 : 영어는 shittim wood인데 단단하고 무거우며 해충에 강한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

신격(神格) : 영어는 Godhead로서 하나님의 품격 혹은 신성을 가리킴.

신성모독(神聖冒瀆) : 영어는 blasphemy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혀 욕되게 함을 뜻함.

신실(信實) : 영어는 faithful이며 믿음직하고 거짓이 없음을 뜻함.

실족(失足) : 영어는 offend이며 걸려 넘어지게 함을 뜻함.

(o)

아가(雅歌) : 솔로몬의 아가(Song of Solomon)에 나오는 이 말은 아름다운 노래를 뜻함.

아들 : 영어의 son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 등의 자손도 되므로(마1:1 참조) 문맥에 따라 합당한 의미로 번역함.

아레오바고 : 영어는 Areopagus이며 고대 아테네의 최고 재판소임.

아마(亞麻) : 영어는 linen이며 아랫과에 달린 한해살이 풀로 껌질로 옷감을 만듦.

아몬드 : 영어는 almond이며 아몬드는 복숭아와 비슷한 편도과에 속한 나무의 열매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이 나며 쓴맛과 단맛의 두 종류가 있음(ISBE).

아버지 : 고대 이교도들은 자기들에게 제락을 베푸는 자를 가리켜 아버지라 불렀으며(ISBE) 이런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로 넘어와 그들도 미가와 같이 제사장 계급의 사람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름(삿17:10).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마23:9) 라고 하시며 이 같은 관행을 책망하심.

아우구스투스 : 영어는 Augustus이며 이는 로마의 첫 황제 옥타비우스가 취한 호칭으로 그의 죽음 이후에는 모든 로마 황제에게 이 호칭을 붙임. 따라서 행25:21, 25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는 눅2:1의 아우구스투스와 다른 인물임(NBD).

악투르스 : 영어는 Arcturus이며 히브리어는 무리 혹은 군중을 나타내는데 목동자리의 일부로 남반구에서 가장 크게 빛나는 세 개의 별들 중 하나이고 큰곰자리 별들과 함께 함(UBD).

안목(眼目) : 보는 눈. 사물을 보아서 알고 분별하는 견식.

안식일(安息日) : 안식은 일하지 않고 편안히 쉬는 뜻하며 안식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며 주일은 일요일로 첫째 날임.

안위(安慰) : 영어는 consolation이며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함을 뜻함.

알파 :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

암초(暗礁) : 어떤 일의 숨은 장애물.

양장(仰帳) : 영어는 curtain인데 이는 옆으로 둘러치는 휘장이 아니고 언약궤를 가리기 위해 위에 덮는 휘장을 가리킴.

앞 : 영어 presence는 마주 대하여 보고 있는 앞을 뜻하며 면전(面前)과 같은 말임.

애가(哀歌) :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

애걸(哀乞) : 소원을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빌.

애곡(哀哭) : 소리 내어 슬프게 울.

애곡하는 집 : 영어는 house of mourning이며 잠언에서 기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초상집으로 되어 있으나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슬퍼하는 모든 집을 뜻함.

애착(愛着) : 어떤 사물과 떨어질 수 없게 그것을 사랑하고 아낌.

애통(哀痛) : 슬프고 가슴 아파함.

약탈(掠奪) :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

양각기(兩脚器) : 영어는 compass이며 컴퍼스 혹은 원을 그릴 때 쓰는 도구.

양친(養親) : 영어는 parent이며 길러 준 어버이를 뜻함.

언약(言約) : 영어는 covenant와 testament인데 둘 다 원어는 디아테케이며 covenant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약속을 뜻하고 testament는 증언(testimony)이나 증언하다(testify)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로 증거로 주는 언약이란 뜻임. 영어에서는 이것들의 구분이 가능하나 우리말에서는 길게 설명하기 전에는 구분이 어렵고 testament의 경우 유언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유언을 주는 존재로 전락할 소지가 있으므로 둘 다 언약으로 처리하되 testament는 특별히 히9:15-16절에 근거하여 상속 언약으로 통일했음. 사람이 죽으면서 주는 유언은 will로서 언약만을 담고 있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testament나 covenant와 다르고 성경에서는 쓰인 적이 없음.

에바 : 영어는 ephah이며 마른 곡물이나 과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약 22 리터임(NBD).

에이커 : 영어는 acre이며 1 에이커는 약 1224 평임.

에피쿠로스 학파 : 영어는 Epicureans이며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 에피쿠루스를 따르던 사람들로 향락주의를 추구함.

여호아 : 영어는 Jehoash이며 요아스의 줄이지 않은 이름임. 여호와가 주셨다는 의미임(ISBE, 대하24:1-16 참조 바람).

역병(疫病) : 영어는 pestilence이며 페스트 등과 같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악성 돌림병.

역청(瀝青) : 천연으로 나는 탄화수소 화합물. 고체의 아스팔트, 액체의 석유, 기체의 천연가스 따위로 길에 깔거나 물이 새지 않게 하거나 썩지 않게 하는 데에 쓰임.

연단(演壇) : 연설이나 강연을 하는 사람이 서는 단.

연로(年老) : 늙을 만큼 나이가 많음.

연방 국가 : 영어는 commonwealth이며 이 단어는 영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등에 쓰이는 단어로 원래는 공공의 복지를 뜻하고 렘2:12에서는 공동 국가/집단을 뜻함.

영(靈) : 전3:21에 나오는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ruwach)를 번역한 것으로 루아흐는 영, 바람을 의미하는데 기존 성경의 경우 과거에 중국의 이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도저히 짐승에게도 영이 있음을

이해할 수 없어 전3:21의 루아호를 혼으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로는 영이라는 각주를 달아 기독교인들을 혼동시켜 왔으나 성경은 전3:19에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호흡을 가졌고 영을 가졌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사람과 짐승 등 코에 생명의 숨을 가진 육체만 죽임을 당했고(창2:7; 6:17; 7:15; 7:22)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람의 나귀가 영을 가졌으므로 천사를 알아보고 말을 하는 일이 생김. 비록 짐승이 영은 가졌으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죽으면 그 영이 땅으로 내려 감.

영존(永存): 영어는 everlasting이고 eternal이 절적인 영원을 표시한다면 everlasting은 시간적 개념의 영원을 나타냄.

영주(領主): 영지, 장원 따위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화(榮華):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

예물(禮物): 사례의 뜻으로 주는 물건.

예수: 영어는 Jesus이며 여호수아의 신약식 이름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행7:45, 히4:8에서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대비시키기 위해 여호수아로 하지 않고 예수라 했음.

예호람: 영어는 Jehoram이며 이는 요람의 줄이지 않은 이름임.

옛 성약 언약: 영어는 old testament이며 보통 구약(舊約)으로 부름.

오리온: 영어는 Orion이며 황소자리 남단에 위치한 별자리로 베텔게우스와 리겔 등의 빛나는 별들을 포함함(UBD).

오메가: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글자.

오멜: 영어는 omer이며 마른 곡물이나 과일 등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약 2.9 리터이며 십분의 일 에마임. 오찬(午餐): 영어는 dinner이며 잘 차리어 손님을 대접하는 점심을 뜻함.

옥합(玉盒): 영어는 alabaster box이며 옥으로 만들거나 꾸민 함을 뜻함.

온유(溫和): 영어는 meekness이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뜻을 뜻함.

온전하다: 영어는 whole이며 깨어지거나 수가 빠지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함을 뜻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주로 병이 완전히 나음을 뜻함.

왕국(王國): 영어는 kingdom이며 원래는 왕권을 의미했으나 차츰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즉 왕국의 의미로 쓰였음.

왕좌(王座): 영어는 throne이며 왕의 자리를 뜻하고 골1:16에서는 천상의 존재들 중 한 등급을 뜻함.

왜곡(歪曲):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요람: 영어는 Joram이며 여호람을 줄여 부른 이름으로 여호와는 높으시다는 의미임(ISBE, 대하21:8-20 참조).

요새(要塞): 국방상 중요한 곳에 구축해 놓은 견고한

방어 시설.

오제 헌물: 영어는 wave offering이며 흔들어서 드리는 헌물임.

용납(容納):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짓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임.

용모(容貌): 얼굴 모양.

우롱(愚弄): 조롱하고 놀림.

우슬초: 영어는 hyssop이며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피를 뿌리기 위해 사용한 식물로 담에서 자랄 정도로 수수하고 향내를 내며 키는 1 미터 안팎임(출12:22, 왕상4:33).

운행(運行):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뜻임.

원소(元素): 영어는 element이며 원자번호가 같은 원자만으로 이루어져 그 이상 더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뜻함.

월권(越權): 권한 밖의 일을 함.

월삭(月朔): 영어는 new moon이며 달이 시작되는 날 즉 초하루를 말함.

위골(違骨): 의학적으로는 탈구(脫臼) 혹은 탈골(奪骨)로 쓰며 뼈가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을 뜻함.

위선(僞善): 영어는 hypocrisy이며 겉으로만 선하거나 착한 체함을 뜻함.

유니콘: 영어는 unicorn이며 뿔이 하나 달린 말 비슷한 짐승으로 힘이 센 것으로 알려짐(신33:17; 욥39:9-12).

유대: 영어는 Judaea이며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 구역 중 하나로서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고 주로 유대인들이 거함.

유대인: 영어는 Jews이며 원래는 바빌론 포로 이후에 유다 지파의 남양국 유다에서 나온 유다 사람을 가리켰으나 그들이 주로 유대 지방에 살았으므로 유대인으로 표기된 듯하고 역사성을 살려 유대인으로 번역했음.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등과 같이 사마리아를 제외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도 두루 거주하였음(왕하16:6; 느1:2; 예2:5 등 참조)

유사(流砂): 흐르는 모래.

유업(遺業): 선대부터 이어온 사업.

유월절(逾越節): 영어는 the feast of Passover이며 이는 넘어간다는 의미임(출12:13).

유출(流出): 영어는 issue이며 흘러 나가거나 흘러 나음을 뜻함.

유향(乳香): 올리브과에 딸린 열대 식물인 유향수의 진. 노랑과 투명한 덩어리로서 숯불로 태우면 특유한 향내를 풍기는데 향분, 걸면 보호 질, 접착제 따위를 만드는 데 쓰임.

육계(肉桂): 영어는 cinnamon이며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은밀(隱密): 영어는 secret으로 드러나지 아니함을 뜻함.

은인(恩人):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은총(恩寵): 영어는 favor로 이는 높은 이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을 뜻함.

은택(恩澤) : 영어는 benefit이며 은혜와 덕택을 뜻함.  
음료 헌물 : 영어는 drink offering이며 기존의 전제.

음식 헌물 : 영어는 meat offering이며 기존의 소제.  
의(義) : 영어는 righteousness이며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를 뜻함.

이마의 표 : 영어는 frontlets이며 이는 성구를 넣은 작은 장식물로 유대인들이 이마에 달고 다님(신6:8; 11:18; 마23:5 참조).

이스터 : 영어는 Easter이며 이는 그리스어 파스카를 번역한 것으로 파스카는 유월절과 부활절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음(OED).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이미 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했으므로 유월절은 지났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강제임스 성경」이 이 단어를 이방인 해롯이 지키던 부활절로 번역한 것은 합당함.

이집트 : 영어는 Egypt이며 기존의 애굽.

이적(異蹟) : 이상스러운 행적.

인방(引枋) : 영어는 lintel이고 벽을 치거나 문골을 내기 위하여 기둥 사이에 가로 건너지른 나무임.

일 : 영어는 work이며 고전3:13에서 이 말은 수고한다 혹은 일한다를 뜻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한 행위나 업적 등을 말함(고후5:10 참조).

일곱 교회 :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있던 실제 교회이나 다른 성경들은 이 구절을 삭제하여 이 사실을 가리고 있음.

일용(日用) : 날마다 쓸 것.

임(臨)하다 : 원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온다는 뜻이지만 본 성경에서는 come을 '하나 재앙이 임하다'의 '임하다'로 번역한 경우가 많음.

(ㄱ)

자손(子孫) : 영어는 children으로 이 단어는 대개 자녀(子女), 자손, 아이들로 번역하였으나 명백히 아들들만을 가리키는 몇 군데는 아들들로 번역했음.

자원 헌물 : 영어는 freewill offering이며 기존의 낙헌제.

작은 숲 : 영어는 grove이며 주로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 정원에 심은 작은 나무나 숲을 뜻함.

잔 맡은 자 : 영어는 butler이며 왕이나 귀족의 음료로 쓰는 과일 주스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주로 하인의 의미로 쓰임(창40:11 참조, WD).

장막(帳幕) : 영어는 tent이며 한테에 베풀어서 별 또는 비를 가리고 사람들이 들어 있게 친 물건.

잠언(箴言) : 영어는 proverbs이며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을 뜻함.

장사(葬事) : 영어는 bury이며 죽은 사람을 묻는 일을 뜻함.

장성(長成) : 자라서 어른이 됨.

장인(匠人) : 영어는 craftsman이며 어떤 물건을 만

드는 기술자.

적대감(敵對感) : 영어는 enmity이며 적으로 여겨 맞서는 마음을 뜻함.

전(殿) : 영어는 temple이며 이 단어는 보통 신전으로 번역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번역됨.

전도자 : 영어는 preacher이며 이는 원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구약 전도서에서만 전도자로 번역했고 신약성경에서는 모두 선포자로 번역했음(롬10:14, 딤후2:7, 딤후1:11 등).

전사(戰士) : 전투하는 군사.

전신갑주(全身甲冑) : 영어는 whole armor이며 온몸을 두른 갑옷 투구임.

전열(戰列) : 전쟁에 참가하는 부대의 대열.

전투대형(戰鬪隊形) : 전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따위의 배치 형태.

절박(切迫) : 다급함.

정결(淨潔) : 순수하고 깨끗함.

정사(政事) : 영어는 principality이며 우리말의 원래 뜻은 정치에 관계되는 일 또는 행정에 관한 사무를 뜻하나 성경적 의미로는 주권을 잡은 자를 뜻하고 열1:21 등에서는 천상의 존재들 중 한 등급을 말함.

정욕(情欲) : 영어는 lust이며 마음에 생기는 온갖 욕구.

정제(精製) : 물질에 섞인 혼합물을 없애고 더 순수하게 하는 일.

정의(正義) : 영어는 justice이며 의리에 맞는 옳고 떳떳한 일을 뜻함.

정혼(定婚) : 혼인을 정함.

제단(祭壇) : 희생물을 바치는 단.

종류대로 :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각각 그 종류대로 나는 것이 참된 과학이며 한 종류 내에서 특별한 환경 등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종류 그 자체가 변한다는 진화론은 거짓 가설임. 이를 확증시켜 주려고 창세기 1장에서만 '그것들의 종류대로'라는 구절이 10번 나옴.

조공(朝貢) : 속국이 주권국에게 물건을 바치는 것.

조문(條文) : 조목을 벌여 적은 글.

조서(詔書) : 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는 글을 담은 문서.

죄 헌물 : 영어는 sin offering이며 기존의 속죄제.

주(主) : 영어는 LORD 혹은 Lord이며 성경에서 8,000여 번이나 나올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주로 번역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히브리어 여호와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 네 자로만 표기되는 '4자 음문자'로서 YHWH로 표기한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이름을 눈으로만 확인하고 정작 부를 때는 아도나이의 모음부호를 YHWH에 넣어 여호와로 불렀다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마소라

들은 모음 기호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보여 주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 성경의 용례를 그대로 살려서 대부분의 경우 여호와와 아도나이를 각각 LORD와 Lord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신약의 경우는 Lord 혹은 lord가 대개 그리스어 큐리오스를 번역한 것이다. 기존의 성경은 「미국표준역」의 영향으로 구약의 LORD를 여호와로 표현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개념 특히 재림에 대한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 즉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날」로 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하면 그 둘이 같은 것임을 알아내기 어렵다는 말이다. 본 성경에서는 Lord는 일반 고딕체로 LORD는 진한 고딕체로 표현하여 둘을 구분하였다. 주와 관련하여 주의 이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큰 LORD는 절대로 호칭이 아니고 이름이라는 점이며 성경 자체가 이를 확증해 주고 있다. “그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렘16:21).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욥2:32) 등에 나오는 ‘주’의 이름(the name of the LORD)이라는 표현(총 88번 나옴)은 주의 이름이 따로 있어 그것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며 여기의 of는 동격의 of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기도를 끝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랑(柱廊) : 영어는 porch이며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운 복도 혹은 그 기둥들 밑의 낭실을 뜻함.

주석(朱錫) : 영어는 tin임.

주시(注視) : 자세히 살피려고 눈을 모아서 봄.

준수(遵守) : 규례, 명령, 규칙들을 좇아서 지킴.

중보(仲保) : 영어는 intercession이며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함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를 하는 경우에 주로 쓰임.

지각(知覺) : 영어는 understanding이며 사물을 이해하는 감각 혹은 알아서 깨달음을 뜻함.

지계표(地界標) : 영어는 landmark이며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를 뜻함.

지체(肢體) : 영어는 member이며 손, 발, 귀 등과 같은 몸의 일부분을 뜻함.

지파(支派) : 영어는 tribe이며 갈려 나간 파를 뜻함.

진멸(盡滅) : 죄다 멸망하거나 죽어 없음.

진영(陣營) : 진을 치고 있는 곳.

진토(塵土) : 티끌과 흙.

징계(懲戒) : 영어는 chastise이며 허물을 나무라서 경계함을 뜻함.

## (天)

착취(擄取) : 자본가나 지주가 노동자나 농민을 임금에 상당한 시간 이상으로 부려서 생기는 잉여가치를 자기의 소유로 함.

참호(塹壕) : 성 둘레의 구덩이. 야전에서 적의 공격을 막으려고 좁고 기다랗게 판 구덩이.

참대(昌大) : 성대함.

창세(創世) : 세상의 창조.

창안(創案) : 영어는 invention이며 처음으로 생각하여 낱을 뜻하고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창조(創造) :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행위로 사람이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음(히11:3). 생명의 우연한 발생을 주장하는 진화론은 열역학 제1, 2법칙에 의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연주의자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믿는 인본주의 종교 체계임(롬1:18-32).

창22:8 : 영어는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이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헌물의 어린양으로 예비하시리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provide라는 단어의 킹제임스 성경 용례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양을 예비하시리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됨(눅12:33).

창포(菖蒲) : 영어는 calamus이며 이는 두여모조자기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줄기와 잎을 향료로 씀. 채색(彩色) : 여러 가지의 고운 빛깔.

채우다 : 영어 replenish는 KJV에 인쇄된 1600년대에 ‘다시 채우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으며 KJV의 다른 구절에서도 ‘채우다’, ‘차다’ 등의 의미로만 쓰였고(사2:6; 23:2; 렘31:25; 겔26:2; 27:25) 1828년의 웨스트 사전 초판 역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채우다’로 해석하고 원어 자체도 ‘채우다’를 의미함.

책무(責務) : 영어는 charge이며 직책과 임무.

책잡다 : 남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탈을 잡아 말하다.

천 년(千年) : 계시록 20장에만 천 년이 모두 여섯 번 나오며 이는 다 실제적인 천 년을 가리킴. 구원받은 성도들은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여 더 이상 죽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1,000년 왕국이 끝난 뒤에 흰 왕좌 심판 때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되 영원한 불 못 형벌을 받음.

천사(天使) : 영어는 angel인데 성경에 나온 천사는 다 젊은 남자이며 여자나 아기나 후광을 지니고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없고 이런 천사들은 다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온 것임. 천사는 평범한 남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을 영접한 자들이 있고 천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항상 ‘he’임(히13:2; 눅24:4, 23; 행10:3, 7, 30 참조). 철장(鐵杖) : 영어는 rod of iron이며 이는 쇠막대기임. 청지기 : 영어는 steward이며 양반의 집 수청방에 있으면서 여러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리킴.

청원(請願) : 어떤 기관에 희망, 소원 따위를 내어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일.

초목(草木) : 풀과 나무.  
 축(鐵) : 영어는 tenon이며 서로 있는 재목의 한쪽을 홈에 끼어 넣을 수 있도록 뾰족하게 만든 부분.  
 추구(追求) : 뒤쫓아 구함.  
 축복(祝福) : 행복을 빚.  
 치부(致富) :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치유(治癒) : 영어는 healing이며 병 고침을 뜻함.  
 칙령(勅令) : 영어는 decree이며 왕이 내리는 명령을 뜻함.

칠칠절(七七節) : 영어는 feast of weeks이며 일곱 이레(週)가 지난 뒤 지키는 첫 열매 명절(출34:21)로 오순절(五旬節)로도 불림.

침례(浸禮) : 영어는 baptize이며 침례는 몸이 물 속에 들어가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 속에서 일어나 나오는 것으로서 강과 같이 물이 많은 곳에서 행함(마3:16; 요3:23; 행8:36-39). 침례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며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하는데(행8:37)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침례를 주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한결 같이 행8:37을 삭제했음.

칭송(稱頌) : 공덕을 일컬어 기림.  
 칭의(稱義) : 영어는 justification이며 이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뜻함.

(ㄱ)

카이사르 : 영어는 Caesar이며 로마 황제로서 시저라 고도 하며 기존 성경에는 가이사로 되어 있음.  
 큐빗 : 영어는 cubit이며 이는 히브리 사람들이 길이를 나타낼 때 쓰던 단위로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약 0.46 미터 정도임.  
 키 : 곡식 따위를 까불러 고르는 기구.

(ㄴ)

타언어(他言語) : 영어는 tongues이며 이 단어는 명백한 외국말을 뜻하며 고전 13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언어 역시 아무 의미 없이 헛된 것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이 의미가 분명하고 질서가 있는 말을 가리킴. 한편 행2:3에서 '혀 같은 것들이 내려와 앉았다고 했을 때의 '혀'들도 같은 단어이며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시기에 이 단어는 행2:8에 있는 것과 같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을 의미했음.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각처에서 온 유대인 혹은 유대교 개종자들임(9-11절 참조)이며 이 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3:1의 말씀을 따라 구약의 전통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유대인들의 관례를 다 지켰으며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많은 시간이 지난 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

탕진(蕩盡) : 재물 따위를 다 써서 없앴.  
 통 : 마5:15에 나오는 통은 영어로 bushel이며 바구니 같은 것을 뜻하고, 요2:6에 나오는 통은 영어로 firkin이며 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1 바스(bath)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영국 갤런으로 약 9 갤런 즉 40.9 리터임(ISBE).

통치(統治) : 영어는 dominion이며 천상의 존재들 중 한 등급으로도 쓰임(OED, 앱:121 등)

통회(痛悔) : 영어는 contrite이며 몹시 뉘우침을 뜻함.  
 투사(鬪士) : 영어는 champion이며 싸움터나 경기장에서 싸우거나 싸우려고 나선 사람을 뜻하고 블레셋의 골리앗에게만 쓰임.

(ㅇ)

파당(派黨) : 영어는 heresy이며 주의 주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함.  
 파라오 : 영어는 Pharaoh이며 고대 이집트 왕의 칭호이고 기존의 바로임.  
 판낙 : 영어는 Pannag이고 과자의 한 종류로 이해됨(ISBE).

폐병(肺病) : 영어는 consumption이고 전에는 주로 폐결핵에 대해 사용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소모성질환을 일컬음.

포도즙 : 영어는 wine인데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에서 wine은 동형 이의어(homograph)로 포도즙 틀에서 갓 짜내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시간이 지나 발효된 포도주의 의미를 다 포함하므로 율례별로 구분하여 번역하되 성경이 분명히 술을 금한다는 사실과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번역하였음. 예를 들어 창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런 인물이 성도에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술을 준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며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 주의 만찬 등에 쓰이는 wine도 마찬가지임. 옛날에는 포도즙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포도즙을 끓여 쟁같이 만들었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를 물에 풀어서 썼음.

포장(鋪裝) : 영어는 pavement이며 길바닥에 돌,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것을 깔아 단단하게 다지어 꾸미는 것을 뜻함.

표(標) : 영어 token은 증거 혹은 증거품을 뜻함.

풍유(諷諭) : 영어는 allegory인데 비유와 같이 풍유도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드는 것인데 비유가 대개 실체가 아닌 상상한 이야기를 예로 드는 데 반하여 풍유는 실제 사실을 예로 사용하는 것이 다름.

풍자향(楓子香) : 영어는 galbanum이며 이는 코를 찌르며 발상 향을 내는 송진임(UBD).

플레이아데스 : 영어는 Pleiades이며 이는 일곱 개의 큰 별과 다른 작은 별들로 이루어진 별무리로 동쪽

하늘의 황소자리에서 찾아 볼 수 있음(UBD).  
 피폐(疲弊) : 영어는 waste이며 낡고 쇠약하여짐을 뜻함.  
 필사(筆寫) : 베껴 쓰는 일.

(ㅎ)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 영어는 oracle인데 원래 oracle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행7:38; 롬3:2)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즉 지성소를 가리킴(OED 등).

하늘의 왕국 : 영어는 kingdom of heaven임.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 즉 하늘이며 이는 영어로 heaven이고 마태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것과 마4:17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으로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꾸준히 말씀하신 왕국 즉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이며 이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32회 나옴.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신 것임(삼하7:4-17; 단2:44, 45; 마4:23; 10:7; 24:14; 행1:6 참조).

하늘의 여왕 : 영어는 the queen of heaven이며 이는 고대 이교도들이 숭배한 아스타르테와 바빌론의 이쉬타르와 같은 여신이고 에스겔 8장 14절의 담무스와 함께 '어미와 아기' 우상 체계를 이루어 '어미 여신'(mother goddess)으로 숭배를 받음(UBD, ISBE, 샛2:13 참조).

하룻길 : 영어는 day's journey이며 성경에서 하룻길은 약 32 킬로미터 정도임(출3:18; 신1:2; 왕하3:9; 은3:3). 한 하나님 : 약2:19는 영어로 "There is one God."인데 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아님.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떠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떠는 것임(딤후2:5; 요일5:7 참조).

할렐루야 :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임.  
 할례(割禮) :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의식 중 하나로 남자아이가 난 지 여드레 만에 포피를 조금 끊어 내는 관례.

합환채(合歡采) : 영어는 Mandrake인데 원어는 두다임이고 마취 성분을 지녀 약물로 쓰이는 식물로서 뿌리는 대개 갈라져 사람의 모습을 함.

해면(海綿) : 영어는 sponge이며 갯속동물의 흡수성 있는 섬유 조직.

행로(行路) : 가는 길.  
 허비(虛費) : 쓸데없는 씀씀이.  
 허탄(虛誕) : 허망함.

헌데 : 피부가 헐어서 상한 자리.  
 혈루증(血漏症) : 피가 나오는 병.  
 형상(形像) : 생김새

호멜 : 10 에바.  
 혼잡(混雜) : 영어는 confound이며 여럿이 한데 뒤섞이어 어수선함을 뜻함.

홀(笏) : 영어는 scepter이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손에 드는 막대기를 뜻함.

화(禍) : 온갖 재앙과 액화.  
 화답(和答) : 시나 노래에 서로 응하여 대답함.

화친(和親) : 서로 의중계 지내는 정분.

화평 헌물 : 영어는 peace offering이며 기존의 화목제임.

환난(患難) : 영어는 tribulation이며 큰 근심과 재난을 뜻함.

환상(幻像) : 영어는 vision이며 꿈 등을 통해 인물이나 사건 등을 보여 주는 것을 가리킴.

황폐(荒弊) : 영어는 desolation이며 주로 거칠고 피폐함을 뜻하나 성경에서는 피폐하게 되어 홀로 외로운 것을 나타내기도 함.

회당(會堂) : 영어는 synagogue이며 같은 무리가 집회장 따위로 쓰는 건물을 뜻함.

회상(回想) : 돌이켜 생각함.

회수(回收) : 도로 거두어들임.

회향(茴香) : 영어는 anise이며 향료용 식물임.

훈육(訓育) : 품성 등을 가르치어 기를.

휴거(擄擄) : 영어는 rapture이며 삼위일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나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살아 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위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을 뜻하며 그래서 보통 환희라고 하며 우리말에서는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 휴거라 함.

흉갑(胸牌) : 영어는 breastplate이며 전투 갑옷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판막이임.

흉계(凶計) : 음중맞고 모진 꾀.

흉정(欽定) : 왕이 몸소 제정함.

흥하다 : 번성하여 잘 되어 가다.

희락하는 집 : 영어로 house of mirth이며 기존 성경에는 전도서에서 혼인집으로 되어 있으나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모든 집을 뜻함.

히1:8-9 : 이 구절은 본래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지은 시편 45:6-7 말씀이므로 거기에서는 2인칭 대명사 'thou', 'thy' 등을 왕으로 번역했으나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대언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대명사 'thou', 'thy' 등을 주로 번역했는데 이는 우리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영어나 원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

히12:18-24 : 사도 바울은 18-21절에서 항상 두려워하며 주를 섬기던 구약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22-24절에서는 신약시대 즉 교회에 속한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기술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심지어 모세보다 더 나은 것을 지냈음을 증언함(23절, 엡3:1-6 참조).

린 : 1 겔린, 2 갑.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동사 어미 변화 용례

### NOTE ON OLD VERB ENDINGS

#### (A) 동사의 **-eth** 어미와 **-th** 어미 처리 To Understand **-eth** & **-th** Verb Endings

(1) 동사의 **-eth** 어미는 대부분 **s**로 바꾸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Change most **-eth** verb endings to **s**).

err-**eth** *is* errs; esteem-**eth** *is* esteems; exact-**eth** *is* exacts; fight-**eth** *is* fights; sit-**teth** *is* sits;

(2) **ss, sh, th, x, ch, o, & i** 등과 같은 글자 뒤의 **-eth** 어미는 **es**로 바꾸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After certain letters such as **ss, sh, th, x, ch, o, & i** change the **-eth** to **es**).

witness-**eth** *is* witnesses; refresh-**eth** *is* refreshes; stablish-**eth** *is* stablishes; rush-**eth** *is* rushes; thresh-**eth** *is* threshes; vanish-**eth** *is* vanishes preach-**eth** *is* preaches; reach-**eth** *is* reaches; reproach-**eth** *is* reproaches; search-**eth** *is* searches; satisfi-**eth** *is* satisfies; signifi-**eth** *is* signifies;

(3) 동사의 **-th** 어미는 **s**로 바꾸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Change each **-th** verb ending to an **s**).

curse-**th** *is* curses; deceive-**th** *is* deceives; declare-**th** *is* declares; decline-**th** *is* declines; defile-**th** *is* defiles;

#### (B) 동사의 **-est** 어미와 **-st** 어미 처리 To Understand **-est** & **-st** Verb Endings

(1) 동사의 **-est** 어미는 생략하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Drop every **-est** verb ending together with any double consonant that precedes it to form the modern equivalent).

lay-**est** *is* lay; lead-**est** *is* lead; left-**est** *is* left; set-**test** *is* set; sin-**nest** *is* sin; sit-**test** *is* sit; swim-**mest** *is* swim;

(2) 동사의 **-st** 어미는 생략하면 현대 영어와 같게 된다(Drop every **-st** verb ending to form the modern equivalent).

change-**st** *is* change; charge-**st** *is* charge;



# 성경 연대기

본 연대기는 존스 박사가 저술한 「구약 성경의 연대기」(*The Chronology of the Old Testament*, F. N. Jones, March 2005, New Leaf Press Edition, Master Book)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AD(Anno Domini): 주후 525년 스키타아 출신의 연대사가/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엑시구스가 저술한 「부활제의 서(書)」에서 그리스도의 기원(Anno Domini)이 비롯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BC 4년에 출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므로 AD는 보통 주후(主後)로 쓰인다.
- AM(Anno Mundi): 창조가 시작된 해 즉 아담의 출생을 기원으로 계산한 연도
- BC(Before Christ): AD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이전을 뜻한다. BC는 보통 주전(主前)으로 쓰인다.
- Co-rer: 공동 왕, 어떤 이유에 의해 두 왕이 공동으로 다스릴 경우에 쓰임.
- Pro-rer: 대리 왕, 새 왕이 나이가 어린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다스릴 경우에 쓰임.
- Sole-rer: 유일 왕, 어떤 왕이 공동 왕이나 대리 왕 이후에 홀로 다스릴 경우에 쓰임.

AM	BC	사 건
	4004	아담과 이브, 우주의 창조
1	4003	가인 출생
129	3875	가인이 아벨을 죽임
130	3874	셋 출생
235	3769	에노스 출생
325	3679	계난 출생
395	3609	마할랄레엘 출생
460	3544	야벳 출생
622	3382	에녹 출생
687	3317	므두셀라 출생
874	3130	라멕 출생
930	3074	아담 사망
987	3017	에녹 승천
1042	2962	셋 사망
1056	2948	노아 출생
1140	2864	에노스 사망
1235	2769	계난 사망
1290	2714	마할랄레엘 사망
1422	2582	야벳 사망
1556	2448	야벳 출생
1558	2446	셈 출생
1651	2353	라멕 사망
1656	2348	므두셀라 사망
1656	2348	노아의 대홍수
1658	2346	아르박삿 출생
1693	2311	살라 출생
1723	2281	에벨 출생
1757	2247	벨렉 출생

AM	BC	사 건
1787	2217	르우 출생
1819	2185	스룩 출생
1822	2182	니므롯의 왕국 시작
1849	2155	나홀 출생
1878	2126	테라 출생
1996	2008	벨렉 사망
1997	2007	나홀 사망
2006	1998	노아 사망
2008	1997	아브라함 출생
2018	1987	사라 출생
2026	1978	르우 사망
2049	1955	스룩 사망
2083	1921	테라 사망
2083	1921	아브라함 우르 출발(떠도는 일 시작)
2094	1910	이스마엘 출생
2096	1908	아르박삿 사망
2107	1897	할레 시작
2107	1897	이삭의 약속
2108	1896	이삭 출생
2113	1891	이삭의 젖을 땀
2126	1878	살라 사망
2141	1863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침
2144	1860	사라 사망
2148	1856	이삭과 리브가 결혼
2158	1846	셈 사망
2168	1836	야곱과 에서 출생
2183	1821	아브라함 사망
2187	1817	에벨 사망

AM	BC	사 건
2208	1796	에서의 첫 번째 결혼
2231	1773	이스마엘 사망
2245	1759	야곱이 라반에게 도피함
2245	1759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함
2246	1758	르우벤 출생(레아)
2247	1757	시므온 출생(레아)
2248	1756	레위 출생(레아)
2249	1755	유다 출생(레아)
2249	1755	라헬이 야곱에게 빌하를 줌
2249	1755	단 출생(빌하)
2250	1754	납달리 출생(빌하)
2250	1754	레아가 야곱에게 실바를 줌
2251	1753	갓 출생(실바)
2252	1752	아셀 출생(실바)
2252	1752	잇사갈 출생(레아)
2253	1751	스블론 출생(레아)
2254	1750	디나 출생(레아)
2259	1745	요셉 출생(라헬)
2265	1739	베냐민 출생(라헬 사망)
2265	1739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남
2272	1732	디나의 강간 사건
2276	1728	요셉이 종으로 팔림
2286	1718	요셉이 두 이집트 관리의 꿈을 해석함
2288	1716	이삭 사망
2289	1715	요셉의 승진(30세)
2296	1708	7년 흉년의 마감
2297	1707	족장들의 1차 이집트 방문
2298	1706	야곱과 족장들의 이집트 거주
2315	1689	야곱 사망
2369	1635	요셉 사망
2433	1571	모세 출생
2473	1531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함
2475	1529	갈렘 출생
2513	1491	이집트 탈출(율법 수여)
2514	1490	성막을 세움
2552	1452	이스라엘이 가데스로 되돌아옴
2552	1452	미리암과 아론 사망
2552	1452	헤스본 왕 시혼 정복
2552	1452	모세 사망(여호수아 새 지도자)
2553	1451	이스라엘 요르단 통과
2559	1445	가나안 족속들과의 7년 전쟁 완료
2559	1445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배분 시작
2560	1444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김
2560	1444	마지막 7지파에게 가나안 땅 배분 완료
2580	1424	여호수아 사망
2599	1405	미가의 제사장(삿17-18)
2601	1403	레위 사람 첩 사건(삿19-21)
2604	1400	구산리사다임의 압제
2612	1392	웃니엘의 구출
2644	1360	에글론의 압제
2662	1342	에훗의 구출
2724	1280	야빈의 압제
2744	1260	삼갈 재판관
2744	1260	바락과 드보라의 구출

AM	BC	사 건
2764	1240	미디안의 압제
2771	1233	기드온의 구출
2804	1200	아비멜렉의 권력 찬탈
2807	1197	돌라 재판관
2830	1174	야일 재판관
2834	1170	암논의 압제
2842	1162	엘리 재판관
2852	1152	입다의 구출
2858	1146	입산 재판관
2863	1141	블레셋의 40년 통치 시작
2865	1139	엘론 재판관
2875	1129	암논 재판관
2882	1122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음(엘리 사망)
2883	1121	삼손 재판관
2883	1121	언약 궤가 기럃여아립에 옴
2903	1101	삼손의 다곤 신전 파괴
2903	1101	사무엘의 40년 블레셋 통치 종료
2909	1095	사울의 등극
2909	1095	사울이 암몬을 패주시킴
2911	1093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
2919	1085	다윗 출생
2934	1070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
2937	1067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
2939	1065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함
2939	1065	다윗이 가드 등으로 피신
2944	1060	사무엘 사망
2945	1059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살려 줌
2946	1058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름
2948	1056	사울과 요나단 사망
2949	1055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됨
2951	1053	다윗과 이스보셋의 싸움
2956	1048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됨
2956	1048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함
2957	1047	다윗이 블레셋을 패주시킴
2957	1047	언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
2964	1040	다윗이 므비보셋을 환대함
2967	1037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2968	1036	솔로몬 출생
2969	1035	암논이 다말을 강간함
2977	1027	암살범의 반역
2988	1016	르호보암 출생
2989	1015	아도니아의 권력 찬탈
2989	1015	솔로몬 유다의 Pro-rex
2989	1015	다윗 사망(솔로몬 Sole-rex)
2992	1012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놓음
3000	1004	솔로몬 성전 봉헌
3029	975	르호보암 등극
3029	975	여로보암의 주도로 왕국이 분열됨
3033	971	시삭의 침공
3046	958	아비아 유다 왕 등극
3048	956	아사 유다 왕 등극
3050	954	나답 이스라엘 왕 등극
3051	953	바아사 이스라엘 왕 등극
3054	950	여호사밧 출생

AM	BC	사 건
3074	930	엘라 이스라엘 왕 등극
3075	929	시므리의 7일 통치
3075	929	오므리 이스라엘 왕 추대
3075	929	디브니와 오므리의 전쟁
3079	925	유다의 여호람 출생
3079	925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디브니 사망)
3086	918	아합 이스라엘 왕 등극
3087	917	아사의 발에 병이 생김
3090	914	여호사밧 유다 왕 등극
3096	908	유다의 아하시야 출생
3098	906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이 됨
3106	898	여호람 유다의 Pro-rex
3107	897	아하시야 이스라엘 왕 등극
3107	897	요람 이스라엘 왕 등극
3107	897	엘리야 승천
3111	893	여호람 유다의 Co-rex
3115	889	여호람 유다의 Sole-rex
3115	889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씀
3117	887	아하시야 유다의 Pro-rex
3118	886	아하시야 유다의 Sole-rex
3118	886	예후 이스라엘 왕 등극
3118	886	아달랴의 유다 왕국 찬탈
3125	879	요아스 유다 왕 등극
3141	863	유다의 아마샤 출생
3147	857	여호아하스 이스라엘 왕 등극
3147	857	성전이 아직 보수되지 않음
3161	843	여호아스 이스라엘의 Pro-rex
3164	840	여호아스 이스라엘의 Sole-rex
3165	839	아마샤 유다 왕 등극
3167	837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Pro-rex
3177	827	유다의 웃시야 출생
3179	825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Sole-rex
3194	810	웃시야 유다 왕 등극
3218	786	대지진(암1:1)
3220	784	유다의 요담 출생
3220	784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망
3220	784	사가라의 이스라엘 통치
3232	772	살롬의 이스라엘 통치(한 달)
3232	772	므나헴 이스라엘 왕 등극
3241	763	유다의 아하스 출생
3243	761	브가야 이스라엘 왕 등극
3245	759	베가 이스라엘 왕 등극
3246	758	요담 유다의 Sole-rex
3252	752	히스기야 출생
3262	742	아하스 유다 왕 등극
3265	739	베가 사망
3274	730	호세아 이스라엘 왕 등극
3278	726	히스기야 유다 왕 등극
3281	723	살만에셀 사마리아 포위
3283	721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정복
3291	713	산헤립의 1차 침공
3291	713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
3291	713	사르곤의 아스돗 포위(사20:1)
3292	712	므로닥발라단의 사절단

AM	BC	사 건
3293	711	사르곤에게 아스돗이 넘어감
3295	709	산헤립(Co-rex)의 2차 침공
3295	709	천사가 아시리아의 185,000명을 죽임
3295	709	유다의 므낫세 출생
3295	709	회년 주기의 15년째 해 시작(사37:30)
3307	697	므낫세 유다 왕 등극
3355	649	유다의 요시야 출생
3362	642	아몬 유다 왕 등극
3364	640	요시야 유다 왕 등극
3370	634	유다의 여호야김 출생
3371	633	요시야의 회심
3372	632	유다의 여호아하스 출생
3375	629	요시야의 1차 개혁
3376	628	예레미야 대언 시작
3381	623	요시야의 성전 보수(율법 발견)
3386	618	유다의 시드기야 출생
3388	616	여고니야(여호야김) 출생
3392	612	바빌론의 니느웨 정복
3394	610	바빌론의 하란 정복
3395	609	요시야가 여고니야에게 기쁨을 부음
3395	609	파라오느고가 요시야를 죽임
3395	609	아시리아의 반격 실패
3395	609	여호아하스 유다 왕 등극
3395	609	여호야김 유다 왕 등극
3398	606	느부갓네살(Co-rex)의 유다 침공
3398	606	1차 바빌론 포로 생활(단1)
3399	605	갈그미스 전투: 느고 사망
3399	605	느부갓네살의 등극
3400	604	느부갓네살(Sole-rex)의 첫째 해
3400	604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 해석
3406	598	소규모 포로들(왕하24:2)
3406	598	여고니야 유다 왕 등극
3407	597	2차 바빌론 포로 생활
3407	597	시드기야 유다 왕 등극
3411	593	에스겔 대언 시작
3411	593	시드기야 바빌론 방문
3412	592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
3416	588	에루살렘 최종 포위 시작
3416	588	파라오의 개입
3418	586	바빌론 사람들의 약탈
3418	586	3차 바빌론 포로 생활
3422	582	소규모 포로들
3443	561	바빌론에서 여고니야가 석방됨
3465	539	메대 사람 다리오의 바빌론 정복
3468	536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선포
3468	536	스룹바벨의 인도로 유대인 귀환(1차)
3469	535	둘째 성전의 기초를 놓음
3484	520	성전 재건 시작
3485	519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와 이혼함
3488	516	둘째 성전 완공
3489	515	에스더가 왕비가 됨
3494	510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모
3495	509	왕의 불면증
3495	509	하만의 교수형

AM	BC	사 건
3495	509	모르드개외 승진
3496	508	모르드개와 에스터의 유대인 구출
3537	467	성전 미화 법령 선포
3537	467	에스라의 예루살렘 도착
3537	467	유대인들이 이방인 아내들을 버림
3549	455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태를 인지함
3550	454	아닥사스다의 칙령(제20년)
3550	454	다니엘의 70 이래 시작
3550	454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옴
3550	454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봉헌
3562	442	느헤미야의 페르시아 귀환
3563	441	말라기(구약성경의 끝)
3673	331	알렉산더 페르시아 정복
3681	323	알렉산더 사망
3833	171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 훼손
3836	168	안티오쿠스가 돼지를 제단에 드림
3836	168	마카비 반란
3839	165	성전 예배 복원
3941	63	폼페이아가 예루살렘을 취함
3964	40	로마의 헤롯 대왕 임명
3967	37	헤롯이 예루살렘을 취함
3984	20	헤롯의 성전 복원 시작
4000	4	헤롯 사망
4000	4	그리스도와 침례자 요한 출생
4004	AD 1	기독교 기원(AD) 시작
4012	9	예수님이 12세에 성전을 방문함
4015	12	티베리우스(Co-rer)의 첫째 해
4017	14	아우구스투스사망(티베리우스 Sole-rer)
4029	26	빌라도의 유대 총독 임명
4029	26	침례자 요한의 침례
4030	27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4032	29	헤롯 안디바가 침례자 요한을 죽임
4032	29	변화산 사건

AM	AD	사 건
4032	29	장막절(요7)
4033	30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4033	30	스테반의 순교
4035	32	바울의 회심
4040	37	칼리굴라 로마 황제 등극
4042	39	헤롯 안디바의 골 지방 유배
4044	41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 등극
4044	41	고넬료 회심(행15)
4047	44	야고보의 순교(행12)
4047	44	헤롯 아그립바의 사망(행12)
4048	45	1차 선교 여행(행13)
4049	46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음(행14)
4053	50	예루살렘 공회(행15): 할례 문제
4055	52	벨릭스 총독 부임
4056	53	2차 선교 여행(행15)
4057	54	네로 로마 황제 등극
4059	56	3차 선교 여행(행18)
4062	59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힘
4062	59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섬
4063	60	베스도 총독 부임
4064	61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 섬
4065	62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
4067	64	바울이 석방됨
4067	64	네로의 기독교 박해
4070	67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4073	70	티투스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4082	79	티투스 로마 황제 등극
4084	81	도미티안 로마 황제 등극
4099	96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됨
4099	96	네르바 로마 황제 등극
4099	96	사도 요한의 석방
4101	98	트라얀 로마 황제 등극



# 지도 색인

지명 찾는 법: 모든 지도에는 가로와 세로 위치를 나타내는 영어 알파벳과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도시를 찾을 때 목록에서 이탤릭체는 지도가 담긴 페이지를 나타내며 알파벳과 숫자 조합은 도시가 위치한 곳을 나타낸다. 예: 가나 15 B4, 15페이지의 가로 위치 B와 세로 위치 4에 가나가 있다.

가나 15 B4; 16 C2  
 가다라 16 D3  
 가데스 8 A5  
 가데스바네아 5 B5  
 가드 9 D3; 16 B5  
 가드림몬 16 B4  
 가드헤벨 16 C2  
 가론 7 B4  
 가버나움 15 B5; 16 D2  
 가이사라 15 C3; 16 B3; 18 E6;  
 19 E6; 20 E7  
 가이사라 빌립보 15 A5; 16 D1  
 가자 6 E3; 7 E2; 8 D4; 9 E3; 13  
 D3  
 가자라 16 B5  
 갈그미스 11 B4; 12 B3  
 갈라디아 14 C6; 18 B5  
 갈릴리 15 B4; 16 C2  
 갈릴리 바다 8 B5; 16 D2  
 갑바도기아 14 C6; 18 B6  
 게네사렛 16 D2  
 게데스 8 A5; 9 A4  
 게르게스 16 D2  
 게바 16 C5  
 게셀 6 D3; 9 D3  
 겐그레아 17 C3  
 고라신 16 D2  
 고린도 17 C3; 18 B2; 19 B2; 20  
 C4  
 고모라 16 D7  
 고산 11 A4  
 고센 5 C2  
 골란 8 A5  
 골로새 18 B4; 19 B4  
 구레네 13 D1; 14 D5; 20 E4  
 구스 4 E4  
 그랄 8 D4; 16 A6  
 그비라 16 B5  
 그일라 16 B5

기랴트세벨 7 E3  
 기랴트야립 16 B5  
 기르모암 6 E5  
 기브롯하다야와 5 D5  
 기브온 6 D4; 9 D4  
 긴네렛 9 B4;  
 길갈 6 D4; 16 C5  
 갈리기아 14 C6; 44 C7  
 길하레셋 9 E5; 16 D7  
 갓다임 16 B5

■

나사렛 15 B4; 16 C2  
 나인 16 C3  
 네게브 16 A7  
 네아폴리스 16 C4  
 네오폴리스 17 A4  
 네스웨 11 B5; 12 B5  
 니므릿 11 B5  
 니코폴리스 20 B4

■

다드몰 11 B4; 12 C3  
 다마스쿠스 11 C3; 12 C2; 13 C3;  
 14 D7; 15 A6; 16 E1  
 다베라 5 D5  
 다브랏 16 C2  
 다소 11 B3; 12 B2; 14 C6; 18 C6;  
 19 C6; 20 C7  
 다시스 4 A1  
 다이나 9 C4; 16 C3  
 단 8 A5; 9 A5  
 답부아 16 C4  
 더베 18 C5; 19 C5  
 데가볼리 15 C5; 16 D4  
 데살로니가 17 A3; 18 A2; 19 A2;  
 20 B4  
 델피 14 C5  
 도단 16 C3  
 도르 6 B3; 9 B3; 16 B3

둑가 5 D4  
 두로 8 A4; 9 A4; 11 C3; 13 D3;  
 15 A4; 16 C1; 18 E6; 19 E6  
 두마 11 D4; 12 E4; 16 B6  
 두아디라 17 B5; 18 B3; 19 B3  
 드고아 16 C5  
 드로아 17 B4; 18 A3; 19 A3  
 드빌 6 E3; 16 B6  
 디르사 9 C4  
 디베라 16 D2  
 디본 6 E5; 8 C5; 9 E5; 16 D6  
 담나 7 D3; 16 B5  
 라기스 6 E3; 9 E3; 16 B6  
 라마 7 D3; 9 B4; 16 B4  
 라못길르앗 8 B5; 9 B5  
 라세아 20 D5  
 라오디게아 17 C6; 20 C6  
 람바(암만) 11 C3  
 람바스 9 D5  
 레기움 20 C2  
 레히 7 D3  
 로데스 17 D5; 18 C3  
 로마 14 C3; 20 B2  
 루가오니아 18 B5  
 루기아 18 C4; 44 D6  
 루디아 34 A2  
 루딤 4 B2  
 루스드라 18 C5; 19 C5  
 룯다 16 B5  
 르비딤 5 D5  
 르호봇 8 D4; 16 A7  
 리비아 13 D1; 44 E4  
 럽나 6 D3; 16 B5

■

마곡 4 A6  
 마돈 6 B4  
 마라 5 C4  
 마리사 16 B5  
 마사다 16 C6

마케도니아 14 C4; 18 A1  
 마하나임 9 C5  
 막게다 6 D3  
 막달라 16 C2  
 메드바 9 D5; 16 D5  
 메롬 6 B4  
 뎀피스 5 C2; 11 D2; 13 D2  
 모압 9 E4  
 무라 17 D6; 20 D6  
 무시아 18 A3  
 므깃도 6 B4; 8 B4; 9 B4; 18 C3  
 미니스 7 D4  
 미들레네 19 B3; 17 B5  
 미스라임 5 D2  
 미스바 7 C4  
 밀레도 17 C5; 18 C3; 19 C3  
 ■  
 바다라 18 C4; 19 C4  
 바보 18 D5; 19 D5  
 바빌론 11 C6; 12 D5; 13 D4  
 바알므은 16 D5  
 밤빌리아 14 C6; 19 C5  
 버가 17 D7; 18 C4; 19 C4  
 버가모 14 C5; 17 B5  
 베다니 15 D4; 16 C5  
 베들레헬 7 B3; 9 D4; 15 D4; 16 C2; 16 C5  
 베레아 17 A2; 18 A2; 19 A2; 20 C4  
 베섹 16 C3  
 베셀 9 D5  
 벨다곤 16 B4  
 벨브올 16 D5  
 벨세메스 16 B5  
 벨수르 16 B5  
 벨엘 7 D3; 8 C4; 9 D4; 15 D4; 16 C5  
 벨호론 16 B5  
 벳바게 16 C5  
 벳세다 15 B5; 16 D2  
 벳세메스 9 D3  
 벳스안 7 C4  
 본도 13 C3; 14 C6; 20 B7  
 부논 5 B6  
 브누엘 7 C4; 9 C5  
 브루기아 13 C2; 14 C6; 18 B4  
 브에롯 16 C5  
 브엘세마 8 D4; 16 B6  
 블레셋 9 E3  
 비두니아 14 C6; 18 A4

비라돈 7 C3  
 비시디아 18 B4; 20 C6  
 비잔티움 14 C5; 17 A6; 20 B5  
 빌립보 17 A3; 18 A2; 19 A2  
 ■  
 사테 17 C5  
 사마리아 8 B4; 9 C4; 15 C4; 16 C4  
 사밀 7 C3  
 사해 8 C5; 16 C6  
 살라미 18 D6; 19 D6  
 서머나 17 C5  
 세겔 8 B4; 9 C4; 16 C4  
 세마 4 E5  
 세여관 20 B2  
 소라 7 D3; 8 C4; 16 B5  
 소안 11 D2; 12 D1  
 소알 16 C7  
 수가 16 C4  
 수산 11 C7; 12 D7; 13 D4  
 숙곳 5 B3; 7 C4; 8 B5; 9 C4; 16 D4  
 스파르타 13 C1; 17 D3  
 스바 4 E4  
 시글락 8 D4; 16 A6  
 시돈 11 C3; 13 C3; 20 D7  
 시리쿠스 14 D4; 20 D2  
 시리아 9 A6  
 실로 6 D4; 7 D4; 9 D4; 16 C4  
 실루기아 18 C6; 19 C6  
 ■  
 아가야 14 D4; 18 B1  
 아다마 16 C2  
 아들람 16 B5  
 아드라미티움 17 B5  
 아드리아 해 20 B2  
 아라비아 14 D7; 15 E7  
 아랏 9 E4  
 아로엘 7 E4; 8 C5; 9 E5; 16 D6  
 아루마 16 C4  
 아름다운 항구 17 E4  
 아벡 9 C3; 9 B5; 16 B2; 16 D2  
 아멜트홀라 7 C4  
 아부도스 17 A5  
 아세가 9 D3  
 아소도 16 A5  
 아스글론 8 C4; 9 D3; 16 A5  
 아스다룻 6 B5  
 아스돗 6 D3; 8 C4; 9 D3  
 아시아 14 C5; 18 B4  
 아이 6 D4; 16 C5

아이알론 7 B3  
 아테네 13 C1; 14 C5; 17 C3; 18 B2; 19 B2; 20 C4  
 아폴로니아 17 A3  
 아피이 광장 20 B2  
 악고 8 A4; 9 B4  
 안디바드리 16 B4  
 안디옥 13 C3; 14 C7; 18 B5; 18 C6; 19 B5; 19 C6  
 알렉산드리아 13 D2; 14 D6; 20 E6  
 알루스 5 D4  
 암몬 9 C5  
 암피폴리스 17 A3  
 앳달리아 17 D7; 18 C4; 19 C4  
 앳소 17 B4; 18 A3; 19 A3  
 앳수르 11 B5; 12 B5  
 애논 16 D3  
 야노아 16 C4  
 야르뭇 6 D3; 16 B5  
 야베스길랏 8 B5; 9 C5; 16 D3  
 야셀 6 D5; 16 D5  
 야하스 6 D5; 9 E5  
 앳딜 16 B6  
 에그론 9 D3; 16 B5  
 에글론 6 E3; 16 B6  
 에담 5 B3; 16 C5  
 에드레이 6 B5  
 에렉 11 C6; 12 D6  
 에베소 13 C2; 14 C5; 17 C5; 18 B3; 19 B3; 20 C5  
 에벤에셀 7 C3; 8 C4  
 에브라임 18 C5  
 에스다울 16 B5  
 에시온게벨 5 C6; 11 D3  
 액바타나 11 B7; 13 C4  
 엔게디 9 E4; 16 C6  
 엔돌 16 C3  
 엘람 4 C6  
 엘르알레 16 D5  
 엘림 5 D4  
 엠마오 16 B5  
 여리고 5 A6; 6 D4; 7 D4; 8 C5; 9 D4; 15 D4; 16 C5  
 여부스 6 D4  
 에루살렘 8 C4; 9 D4; 11 C3; 12 D2; 13 D3; 14 D7; 15 D4; 16 C5; 18 E6; 19 E6; 20 E7  
 에스르엘 8 B5; 9 B4  
 오노 16 B4  
 오봇 5 B6

오브라 7 D4

오벨 4 E6

온 5 C2

올림푸스 17 C2

옵바 8 C4; 9 D3; 15 D3; 16 B4

우르 11 D6; 12 D6

유다 16 B6

유대 15 D4; 16 C5

이고니움 18 B5; 19 B5

이두래 15 A5

이두매아 15 E3; 16 B6

일루리곤 14 B4

■ 크니두스 17 D5; 20 D5

크레테 14 D5; 20 D4

키프로스 14 D6; 18 D5

■ 톨레마이 15 B4; 16 B2; 18 E6;  
19 E6

■ 페레아 16 D4

프테올리 20 B2

필라델피아 17 C6

■

하나돈 9 B4

하란 11 B4; 12 B3

하맛 9 B4; 11 B3; 12 B2

하세롯 5 D5

하술 6 A4; 9 A4; 16 D2

헤브론 6 D3; 6 E4; 7 E3; 8 C4;  
9 E4; 16 B6

헤스본 6 D5; 9 D5

호르마 5 B6; 9 E3

홍해 5 E5; 10-2 E1; 11 E3; 13 E3;  
14 E7

히에라폴리스 17 C6







